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3월 2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조계종이 사상 최초로 신도증을 발급했다. 불교에 귀의해 불자로 살겠다는 신도로서의 증표인 신도증 발급을 계기로 삼보에 귀의하는 참뜻과 불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귀의 삼보

앞으로 혼탁해질 때에 가서, 깨끗하고 좋은 복덕과 인명장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온갖 삼보를 경신하고 이에 귀의하여 부처님을 공양하며 법을 공양하며 승을 공양하면, 태어날 때마다 인신을 항상 얻어서, 왕·대신·통령·재집 등의 자리를 잃지 않고, 연년장수할 수 있다. 그리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 쾌락을 흠뻑 누린다. 〈대교왕경〉

항상 삼보에 귀의하면, 먼저 천중에 태어나는 즐거움을 받고, 뒤에 가서 해탈음의 과를 얻게 되리라. 〈제법집요경〉

만약 청정한 신심을 지닌 사람이 있어서, 여래 계신 곳이나 성문 있는 곳에서 이 가르침을 듣잡고 크게 착한 뜻을 일으켜, 불·법·승에 귀의해 여래의 청정한 계법을 받는다면, 이는 다함이 없는 공덕 이므로 큰 과보가 있을 것이다. 〈존중경〉

선남자·선녀인이 청정한 신심을 가지고, 이제 저는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께 귀의하나이다. 욕망을 떠난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나이다. 온갖 집단 중에서 가장 존귀한 승에 귀의하나이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의 얻는 복이 헤아릴 수 없으리라. 〈최무비경〉

죄보가 무궁하다 해도, 삼보에 귀의하여 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더없는 해탈음을 스스로 이루게 되리라. 〈범천신책경〉

부처님께 귀의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이익을 얻으리니, 밤낮으로 마음 속에서 염불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법에 귀의하면 아주 좋은 이익을 얻으리라니, 밤낮으로 마음 속에서 염법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승에 귀의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이익을 얻으리니, 밤낮으로 마음 속에서 염승을 떠나지 말아야한다. 〈인연승호경〉

비유하자면 부처님은 의사, 가르침은 건강, 교단은 간호인, 계는 양약(良藥)이라 할 수 있다. 〈이비담비파사론〉

네 가지 의심을 끊어 대치하여 삼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취지를 확립한다. 첫째는 의혹을 끊음이고 둘째는 삼증나는 마음을 끊음이며 세째는 사견을 끊음이고 네째는 정집을 끊음이다. 이는 이것을 네 가지 단혹이라고 한다. 〈석미하연론〉

관련기사 3면

비구니스님 대학진학 급증

동국대등 신입생스님 1백17명중 67명 2년새 10%늘어

비구니스님들의 대학진학율이 대폭 늘고있다.

96학년도 동국대 서울과 경주 캠퍼스, 중앙승가대학의 신입생 비구, 비구니들은 총 1백17명. 이중 비구니는 67명(58%)으로 비구 50명에 비해 17명이 더 많은 진학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93년도까지 평균 50:50의 비율을 보인것에 비해 약10%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비구 45명, 비구니 59명(57%)에 이은 것으로 개혁종단이 출범한 95학년도를 기점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비구니들은 감원을 이수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교육열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비구니들은 대학진학 이유에 대해 '현대교육을 받기위한 것(94년 승가대 설문조사에서 62.3% 응답)'으로 알려져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고수하며 폐쇄적이라는 비구니들의 기존 의식을 탈피, 대학진학율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서울 화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던 동국대 석림회 제33회 신입생 입재식에서 불교학과 교수 해주스님은 "해년마다 동국대 불교대학 신입생중 비구니들의 비율이 늘고 있다"며 "비구니 교육을 위한 종단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석림회의 유방스님은 "사찰이나 선방에 가려는 비구에 비해 비구니들은 현대적인 대학교육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동국대가 올해부터 종단추천장학금을 확대하여 조계종 승려의 경우 전원이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하고 있어 비구니스님들의 교육열에 부응하고 있다고 동국대측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27일 현재 조계종 승려는 총 1만8백11명이며 이중 4%가 비구니인 것으로 나타나 94년의 4%에 비해 2년사이 4%가 증가한 것도 비구니의 대학진학율을 높이는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비구니들의 경우 대학진학등 교육열이 일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승과 제자만 있는 대부분의 사찰여건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대학원이나 유학등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비구니들을 위한 교육재정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또한 높은 교육을 받은 비구니들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비구니총림등의 기구마련과 재정운용, 복지, 청소년 유아교육분야등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수 있는 종단참여의 길이 열려야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불교TV 독도 위성수신

불교TV가 지난 1일부터 추진해온 독도 위성수신장비 설치계획이 지난 21일 오전 7시 불교TV 김충현PD와 대룡시스템, 경북포항 케이블TV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설치를 마쳤다. (67호 1면 보도)

이로써 독도에서도 불교TV를 비롯 16개 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있게 돼, 독도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경계의 영역을 넘어 우리나라의 문화적 경계로서도 큰 의의를 지니게 됐다.

봉영사인근 아파트·국청사 경내지 도로등

개발위주 행정에 전통사찰 '몸살'

최근들어 전통사찰을 비롯 사찰환경과 성보문화재가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행정으로 인해 훼손될 심각한 상황에 처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봉선사의 말사인 남양주시 봉영사 인근 19층의 고층아파트 건설을 비롯해 ▲부천시 청련암은 일주문에서 불과 20여미터 거리에 왕복 4차선 도로 건설 ▲부천시 봉녕사 승가대학근처 종합운동장 건설 ▲부산 국청사의 경내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등 전통사찰보존을 무시한 개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전통사찰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면 경내지와 관련된 법령만 있을 뿐 경외지에 건축물을 신개축할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제한이 없어 전통사찰 인근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현행법으로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사찰환경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성직자 대학원' 백지화 한다

정부 · 부산불교대책위 간담회 '여론무시 시인'

최근 불교계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교계위의 교육개혁법안 중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제 도입' '중·고등학교 종교교목 신설' 등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과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비서관이 불교계의 여론을 수렴, 이를 완전 백지화시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종교권향 정책과 관련한 도봉, 정각, 남촌, 혜지스님 등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특별대책위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문체부에서 김영수 문체부장관, 박세일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김용문 문체부 종무실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문체부장관 등은 성직자 관련 법안은 불교계의 여론을 무시한 방안이었음을 시인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대통령의 국군 중앙교회 방문예배와 관련해서는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종교편향적인 행위가 없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고 특별대책위원들은 밝혔다. 김 문체부장관 등은 또 교육개혁위원의 선임과정과 인사관련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할 것을 표명했으며 불교계 최대 현안인 고속전철 경주통과와 법어사 고속전철 지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문위원에 불교계 인사를 많이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독도는 한국령

日불교지도자 공식발표

독도영유권과 관련 일본 불교지도자들이 독도는 한국령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13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17차 한일불교문화교류회 준비회의에 참석한 홍과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일본측 대표들이 독도가 한국령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정치목적으로 독도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양국 대표는 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일본 닛코(日光)에서 개최키로 합의 했다.



◇월성 나원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함내의 소탑(사진). 영락과 풍경이 손상되지 않은채 그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이 소탑은 전형적 신라탑 양식으로 당대의 불탑 및 조각 양식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국보급 금동사리함 발견

월성5층석탑서…통일신라 소탑·불상등 봉안

금동탑과 불상이 들어있는 통일신라시대 금동사리함이 국보 제39호 월성 나원리 오층석탑에서 발견됐다. (관련기사 6면)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18일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월성 나원리 오층석탑' 해체 수리작업을 하던 중 석탑 3층 옥개석 부분에서 금동탑 1기와 소탑 3기 및 불상 1구가 봉안된 금동사리함을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굴된 사리함 뚜껑 윗면에는 연화당초문(蓮華唐草文), 사방측면에는 사천왕상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으며, 사리함 내부에서 발견된 금동탑 1기(높이 10㎝)는 3층 탑신과 상륜부를 갖춘 전형적인 신라탑 양식을 하고 있다.

특히 상륜부 주위로 영락(瓔珞·구슬을 꿴 장식품)이 장식돼 있으며 축대 추녀끝에는 풍경(風磬·경쇠)이 손상되지 않은채 매달려 있어 당대의 불탑 및 불상, 조각양식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선교" 15면
출가·열반절 특집 7·8·9·14면
산문밖의 6개 일상약품 정형식 회장 5면
국립 전통문화학교 설립된다 1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모뎀번호 722-1520-4

미래에 도전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효성중공업
發進.21世紀
고객제일주의 정신으로
고객감동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성중공업—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효성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중전사업부문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변압기, 차단기, 전장품, 계전등, 몰접기, 철탑설비
기전사업부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차설비, 환경보전설비, 하역장치, 식도설비
FA사업부문
최첨단 MECHATRONICS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 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 계장설비, UPS, PLC등 전력전자, 물류 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호제어 SYSTEM
건설사업부문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오피스빌딩 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 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준설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

사 설

자기혁신 통한 佛音 전파

—불교방송 신임사장에 거는 기대

불교방송은 무한의 시간 속에서 무변의 공간에 깨우침을 펴는 불음(佛音)이다. 뿐만 아니라 1천6백여년을 다져온 한국 불교 2천만 불자의 입이며 귀이다. 불교방송이 시작되는 날 우리 불자들의 마음은 억겁무명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불교발전의 큰 전환이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와 기쁨에 가슴이 벅찼다.

그동안 신심과 염원으로 개국과 경영에 견인차 역할을 한 장상문 사장이 타계하고부터 불교방송은 정상운영을 하지 못하고 내외적 불화와 운영의 난맥사으로 불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신심 돈독한 신도로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조해형씨를 새로운 사장으로 선임하게 되었음에 불자들의 마음에 다소나마 안도감을 가지면서 새로운 기대로서 관망하게 되었다.

이에 신임 사장은 교계내외의 여망에 충족해야 할 원력을 갖고 신심으로 쌓은 지덕과 전문경영의 경륜을 바탕으로 불교방송의 새로운 도약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차제에 바램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포교는 불교의 생명선이므로 방송포교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방송 본연의 사업을 위한 방송국 내부의 화합과 원활한 운용 뿐만 아니라,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로서 교계의 힘을 실은 좋은 방송이 되도록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찰나에 변화하는 대중의 마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끊임없는 연구와 정진으로 불교문화가 대중생활에 파고들 수 있어야 하고, 들으면 당장 신심나는 소재를 찾아 항상 새로운 방송으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원활한 경영의 쇄신이다.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그동안의 침체된 경영을 자립할 수 있는 향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방송국이 어느 단체에도 의존함이 없이 떳떳한 독자적인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인 사장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전체 구성원의 자기 혁신이 우선적으로 절실히 요망된다. 탄탄한 자립경영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육화사상적 상호 이해와 멸사봉공의 보살정신이 투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 전국 지방망의 확충이다. 불교방송이 발족될 때 전국 방방곡곡의 불자들은 불음방송의 부푼 기대 속에 십시일반의 정성어린 성금이 모아졌었다. 물론 수도권과 부산·광주권과 곧 개국될 대구·청주의 가청권을 추산하면 전 인구의 3분의 2는 청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 방송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열악한 현상이다. 당국과의 부단한 접촉을 통하여 산골 농어민 불자들도 부처님의 방송을 듣고 '깨달음의 사회화'에 동참할 수 있는 평등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불교방송은 누구 한 개인의 것이 아니다. 한국불교 2천만 사부대중의 공유이다. 종단이나 진흥원, 출가나 재가가 각기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고 치우친 독점을 하려 해서도 절대 안된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중생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임을 되새기며, 이해와 협력으로 불교발전을 위하여 부처님의 씨앗을 널리 뿌려야 한다.

특히 불교방송국의 구성원은 신임사장의 경영의지를 충실히 따르고 화합하여, 불자들의 귀를 의식하고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신심나는 방송, 듣고 싶은 방송, 생활과 함께 하는 방송이 되도록 전력해주기 바란다.

열 린 마 당 공명선거

제15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마다 후보자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고 선거운동 열기또한 막바지에 다다렀다. 새로 제정된 통합선거법으로 처음 맞는 선거이건만 불법·타락선거운동이 만만치 않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하고 실천방안은 무엇일까. 〈편집자 주〉

정책·인물 위주 선택 '유권자 의무'

월 서 〈불교공명선거계도위 위원장〉

이번 4·11총선은 지방화·세계화시대를 개척해 나가기위한 민주정치의 분수령으로 범국민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통합 선거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타락적인 선거운동이 기묘한 형태로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총선에 앞서 종단협산하 28개종단 대표자 스님들은 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중의를 모아 공명선거 계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정선거신고센타(732-2611~3)를 개설한바 있다.

계도위는 공명선거를 위해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 구현 △학연·지연·혈연등 연고주의 선거문화개혁 △정책 및 인물중심의 선거풍토정착 △적법한 홍보 및 공정한 선거관리풍토 실현을 활동지표로 내걸고 불자들의 동참을 촉구하고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선량을 뽑아 지역주민의 민의와 여론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의 정책집행을 감시케 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부여된 고유 권리이다. 이러한 막중한 권리를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한다면 그책임은 우리 유권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금번 총선을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르지 못한다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21세기를 맞이할 자격과 권리가 없을 것이다.

파사현정의 신장이 되어 중립자적인 입장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돈안쓰는 선거' 감시 신고 철저히

조 영 식 〈중앙선관위 홍보과장〉

4·11 총선은 21세기를 여는 중요한 고비에서 실시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 선거이다.

통합선거법은 돈 안쓰는 공명선거를 제도적으로 확보한 법이다. 이번 선거에서 공명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의 공명선거는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냐의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는 지역과 혈연, 학연 등 연고에 따른 '감정'으로 얼룩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여기에다 종교감정까지 겹쳐지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투표 행위만이 유권자의 몫이 아니다. 부정감시도 유권자의 몫이다. 어느 후보가 돈봉투를 건넨다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감시와 신고는 여러 사람의 피해를 막는 자비행위 이기도 하다.

아울러 바른 후보자에게 선택하는 유권자의 노력도 요구된다. 통합선거법은 개인 및 정당연설회, 초청토론회등 유권자와 후보자가 만나는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같은 기회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물론 유권자의 선택기준을 만족시키는 후보가 없을 수도 있다. 그중에 보다나은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책임있는 유권자의 태도이다.

신 희 권 〈지비의전화 사무국장〉

연고주의 벗어나 떳떳한 한표를

한국에 민주주의가 도입된지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의 우리의 선거문화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역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불교계에도 굉소에는 발길 한번 없던 정치인이 선거때만 되면 블자(?)라며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사찰이나 불교단체를 찾으며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특히 불교가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는 표를 구걸(?)하는 발길이 는에 띄게 증가하였다.

불교가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집단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고 불교계에 대한 공약 또한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볼 때는 한편으로는 불교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 으쓱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이전의 선거 형태가 금지혈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불자이니까 뽑아주자는 무분별한 정리주의가 하나 더 가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또한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불교가 여타 종교와 달리 실천(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불자에게 한국사회에서의 커다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온 총선.

바른 선거문화풍토 정착을 통한 깨끗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 우리 불자가 앞장서 실천할 때이다.

박 희 정 〈주부·서울 독산동〉

여성유권자 10대 수칙 지키자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당은 다양한 선거공약을 제시하며 표발다지기에 한창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선거때만 되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선거운동, 선심성 공약남발, 관권개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정당은 유권자들을 적당히 속이고 유권자들도 적당히 속아넘어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학인·지연·혈연에으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도 우리나라마늬 선거문화일 것이다.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은 공명선거를 하자는 데 이의를 갖지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행동지침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얼마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발표한 여성유권자 10대수칙이 눈길을 끈다. 이가운데 △투표권 포기 않기 △선거운동 감시·감독하기 △선심성 공약 남발 배격하기 △향응제공,기부행위 매수되지 않기 △자유 평등 인권존중하는 후보선택하기 △여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올바른 정책후보 선택하기 △사생활 문란한 후보 뽑지 말기 △부정부패 전력있는 후보 뽑지 않기 등은 모든 유권자들이 잊지말고 실천해야 하겠다.

최 영 지 〈건국대 영문과 3년〉

공약 선택혼란 공개토론 했으면

'김모씨는 ○○당에 입당한지 얼마만에 선거구 문제로 탈당했다.' '어떤 후보는 사람은 똑똑한데 조직이 없어서 안돼' 하는 이런저런 얘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친구들의 대화내용은 정치얘기에 초점이 맞춰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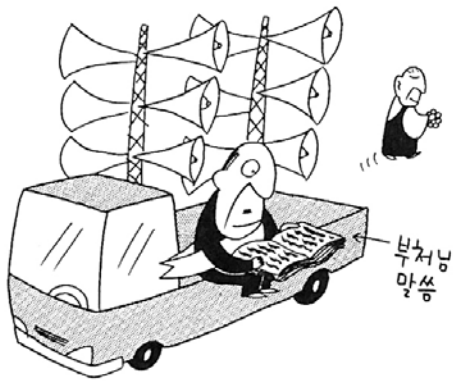
내가 유권자가 되어 우리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생각하니 책임이 무거워진다. 4·11총선이 다가오면서 느낀점은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몇년에 태어나 무슨 일을 했다'는 약력과 선거철만되면 컬러색 홍보물 속의 인상좋은 모습과 광고성 문구만으로는 올바른 선택하에 공정한 선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 당과 후보마다 수많은 공약과 흡사한 논리를 내세우지만 유권자들에게 혼동만 일으켜 여간 관가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를위해 공개석상이나 언론을 통한 제대로된 토론이라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길을 가다가 기호별로 웃음짓는 후보들의 모습을 볼때면 시험지를 눈앞에 둔 수험생때처럼 느껴질때가 많다.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돼 국민을 위한 선량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바라면서 선거에 임하려고 한다.

현대만평

박구원



民心을 알아야…

목어

"송구스럽습니다. 변변치 않은 작품들을 보여드리게…"

붓과 함께 佛母 65년, 그 흔한 개인전 한번 안가진 석정스님(중요무형문화재 48호)은 70평생 처음으로 대중의뜻에 의해 열린 세종회관 전시장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잔잔한 미소에 말씀과 행이 조용하고 늘 겸손한 스님은 매사에 여여하다. '나'또는 '내가'라는 相을 느낄 수 없는 그냥 보살이시다. 이번 전시만해도 그렇다. 수차례 거절하다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한국의 불화〉 전집 발간을 위해 소장작품 일체를 성보문화연구원에 기증하고 전시를 승락했다. 당신을, 또는 작품을 내보이려는 것이 아니고 10년 불사의 원만회향을 발원하면서 펼친 미당이었다.

10년전인가. 스님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옛날 탱화와 불화를 보수해서 모시는 일을 시작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힘으로. 그러다 성보 보존에 뜻을 같이하는 범하스님을 만나 전국 불화 5천여점을 집대성하는 대작불사가 본격화 됐다. 스님은 "어쩔수 없이 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에 취임했다. 그러나 스님에게 총재란 직함은 명예나 벼슬이 아니다. 일을 이끌어주는 선지식의 자리에 붙인 이름일 뿐이다. 스님은 한없이 겸손하다. 전시와 함께 칠순기념으로 펴낸 시화·시문집에서도 "내 시원치 않은 그림과 글을… 내 그림을 선화니 뭐니 한다는데 어찌 감히 범부의 그림에 禪字를 함부로…"라며 당신을 지극히 낮추었다. 그러나 대중은 알고있다. 60년대말 화단에 '선서화'란 장르를 스님이 개척하셨음을. 그리고 불화가 어려워 화두중에 붓가는대로 그린 스님의 선묵에서 말이 끊어진 선묵의 향기가 피어나고 있음도.

석정 스님

석정스님은 묘한 인연으로 금강산에서 태어났다. 당대의 선지식 석두선사(효봉스님의 스승)와 숙명여고를 나온 신여성 이봉춘보살과 부모연을 맺은 스님은 3살때부터 불화나 불상을 보는대로 흉내내어 그렸다.

'금강산 신동 화가'는 13세에 부친 석두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송광사 김일섭 스님의 화맥을 이어 오늘에 이른다. '법향' 그대로인 석정스님의 외길 정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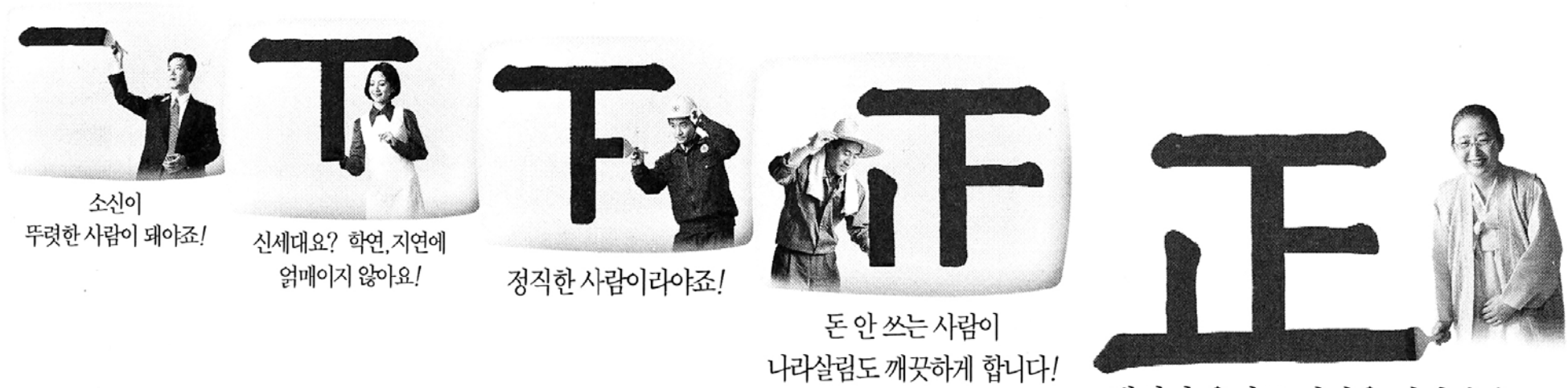
몰라서 짓는 잘못이 화 더커

"알면서 악행을 짓는 사람보다 몰라서 악행을 짓는 사람의 화가 더 크다. 불에 달군 쇳덩어리를 알고서 잡았던 사람과 모르고 잡았던 사람은 어느쪽이 심하게 데이겠나."

〈미선다양문경〉

협찬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이사장 회 장 김 명 윤

4월11일은 깨끗한 사람 뽑는 날



한표를 행사하는데는 1분 —
그 결과는 4년을 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대중 포용하는 방송기능 강화"

인터뷰 불교방송 신임사장

조 해 형 씨



조직 재정비 통해 경영능률 극대화
"전국 방송망 확대 포교기반 다질터"

-불교방송 사장에 선임되셨는데 소감부터 들려주십시오.

▲먼저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동안 불교방송 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자리에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선임소식을 듣고 불교방송에서 나같은 경제마인드를 원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방송의 사장으로서 불교계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적을 쌓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제분야에서 활동해오신 전문 경영인으로서 교계안팎에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불교방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불교방송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주변환경이라는 것이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에 불교방송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선 경영기반구축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불교방송이 경쟁력을 가진 우수 방송국으로서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이러한 것을 실현할 생각입니다. 이미 불교방송이 세워놓은 설계에 새 사장으로서의 비전을 가해서 좀 더 튼튼한 설계를 확정,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장자리가 공석이었던 관계로 제 생각에는 조직내에 비능률적인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조직 재정비 작업을 통해서 경영능률의 극대화를 추구할 생각입니다.

-법인관리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조계종과 불교방송의 관계가 미묘해질 전망인데요.

▲이사장 종하스님께서 조계종 종회의 원이시니만큼 많은 부분 도와주실 것으로 봅니다. 저는 불교방송을 위한 대외적인 일에 더 신경을 쓸까 합니다. 진정한 포교방송,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불교방송은 우선 우량기업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저의 경영마인드를 최대한 발휘해 불교방송을 일구고 그것을 통해 전 불자가 일체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불교방송에서 즐겨 들으셨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점은 고쳐나가야겠다 하는 것이 있으셨다면.

▲기업인의 생활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불교방송을 자주 접하는 것이 그리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출근전 집에서 차안에서 시간 있을 때마다 불교방송을 청취했지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근차근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불교방송의 전국방송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신다면.

▲불교방송이 최근 2~3년 사이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불교방송의 전국방송화를 위해 열심히 뛸 계획이지만 저혼자 단독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불자 여러분과 종단, 그 밖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청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뒤지지 않고 경쟁력을 갖춘 불교방송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행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제자신을 신행생활에 있어서는 초등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기업에 몸담아 생활하다 보니 능동적인 신행생활은 잘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집안이 대대로 불교집안이고 제 아내인 김인숙교수(국민대)는 불자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내와 조계사에 가끔 참배하러 가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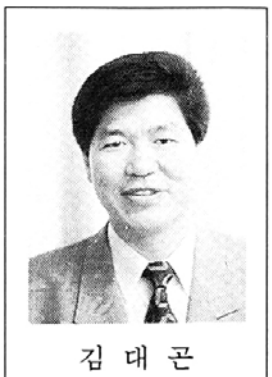
-법명은 있으신지요?

▲제 법명은 아직 한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 '성암(城巖)'이라고 합니다.

이은자 기자

시 론

정치는 곧 돈인가



김 대 곤
〈한국경제신문 편집기획위원〉

4월 총선을 앞두고 돈에 의한 정치타락이 또 화제가 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92년 대선자금으로 엄청난 금액을 받았다면서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신한국당에게 진상을 밝히라며 공격에 나섰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야권이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정치헌금을 받았다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다.

매관매직과 '간단한 인사'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수설에 대해서는 그 개연성이 깊어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 금액은 안개속에 묻혀있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통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구 민주당 시절에 전국구 공천과 관련시켜 일개인이 보스에게 건네준 금액은 평균 44억원이고 여기에 별도의 '추진비'라는게 있다는 것이다. 추진비란 보스에게 줄을 대준 사람이나 전국구 공천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도록 소위 당내 어른들께도 '간단한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공명선거를 외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분개하고 있다. 전국구 의원직 공천을 돈을 받고 해준다면 과거 옛왕조들의 매관매직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 이처럼 돈을 내고 국회의원 금배지를 단 인물이라면 필시 그 본전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권리나 신분을 악용해 각종 이권사업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기 사람의 청탁에 주저없이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돈에 의한 정치타락상에 대해 이른바 현실을 잘 안다는 인물들은 그렇게 흥분만 할게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 대책을 세우자며 제법 진지한 얼굴을 하는 양반도 있다. 선거를 치르고 정치조직을 운영하려면 돈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게 현실론자들의 주장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정치는 곧 돈이다 라고 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진실'이나 정책을 알리자면 장소가 필요하고 운동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스의 입장에서도 취약한 지구당에 격려금을 보내고 당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총당하는 수단으로 돈있는 사람을 전국구 의원으로 영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두환씨나 노태우씨도 이같은 입장에서 자신들이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뇌물이 아니라 '통치자금'으로 헌납받은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어찌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느냐는 표정이고 가소롭다는 자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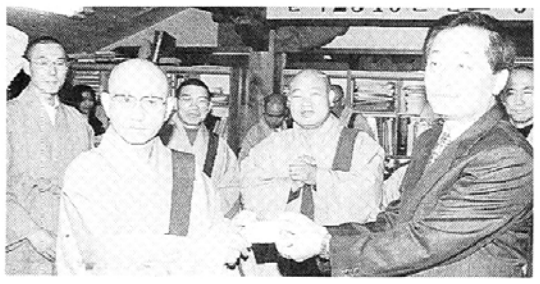
조그만 부정에 안절부절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창출시킨 권력을 좋은 정치를 하는 쪽으로 돌리면 될게 아니냐는 것,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는 논리이다. 이들의 주장도 얼핏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진흙탕에 뿌리를 박고 있지만 연꽃은 매우 해맑은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정치와 돈과의 관계도 과연 이와 같을까.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엔 너무도 위험부담이 크다. 만약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지 않고 독초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분명한 것은 현재의 제도가 과연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책인가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검증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국구의원제는 과연 왜 필요했던가. 정치적인 인기에 의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만 있을 경우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각 직능단체나 전문분야의 인물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현재의 전국구 의원이 과연 직능단체나 전문분야의 인물로 공천되었는가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이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으므로 폐지해야 마땅하다.

공영선거제 도입해 볼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선출기준을 개인 인물본위에서 정당의 정책과 실천자세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 인물위주로 뽑아주면 그들은 당선후에 적당히 다른 당으로 옮겨가버리고 만다. 그럴 경우 정당이란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현재의 정당은 정당이라기 보다 보스에 의한 개인집단이다. 하루빨리 정당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돈에 의한 정치의 타락상을 막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은 공영선거방식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선거비용은 일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활동 외에는 모두 인정해주지 말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옥외에서 하는 정치유세나 시국강연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옥내에서 후보자끼리 정책토론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는게 좋을 것이다. 이때 각 지역에 있는 케이블 TV의 지역방송으로 중계를 해주면 생업에 바빠 토론회장에 나오지 못하는 유권자에게도 올바른 선택의 잣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18일 신도증 전달식을 갖고 신도증 발급업무를 본격화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조계종 1호 신도 이계민씨(서울 진관사)에게 신도증을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교계 첫 신도증 발급 의미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18일 조계종 1호 신도인 이계민씨(서울 진관사)에게 신도증을 전달함으로써 신도증 발급업무를 본격화했다.

신도증은 조계종이 종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적사찰 갖기 및 신도법이 정하는 사찰, 교구, 중앙신도회 조직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불교 1600년만에 근대적인 신도조직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날 신도증 전달식에도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법타스님, 기획실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성타스님이 참석, 그 중요성을 짐작케 했다.

신도증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신도법을 법적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신도의 정의를 '재적사찰 및 종단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신도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적사찰 갖기 촉매 될듯"

신도등록 의무화 … 종단 조직력 제고
교무금 1만원 교육·복지 등에 사용

포교원은 현재 1만2천여명의 신도들이 신도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4월부터는 교구본사와 주요사찰을 순회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올해안에 10만명, 2천년까지 2백만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신행활동을 유도하고 △사찰과 종단의 조직력 제고 △종단에 대한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특정사찰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그동안의 신행행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자칫 등록만 하고 신행활동은 없는 이름뿐인 신도를 양산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삼보법회, 금강경독송회와 같이 재가불자 중심의 단체를 포함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행단체도 재적사찰을 갖도록 한다는 포교원의 방침이지만, 이들을 어떻게 종단으로 끌어들일 것인지도 관건이다. 따라서 사찰을 중심으로 한 각종 신행프로그램의 개발과 제시가 또하나의 과제로 남는다. 한편 매년 납부하는 교무금 1만원은 재적사찰과 포교원이 50%씩 특별회계로 관리, 포교 신도관리 및 교육 사회복지 문화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교무금은 기존 신도회에 내는 신도회비와는 별도로 교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성운 기자

신도증 발급받으려면

지난해 11월 개정된 신도법에 따라 조계종의 모든 신도는 재적사찰을 갖고 사찰에 신도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따라 신도증 신청도 의무화됐다.

신도는 자신이 신행의 근본으로 삼고자 하는 전국의 본달사, 포교당 등을 재적사찰로 정하고, 이 사찰에 신도증 발급을 희망하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교무금(성인 1만원, 18세 미만 5천원,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을 사찰에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소정의 신도등록서 1부와 증명사진 3매.

다니는 절에 신도등록서 내야

신도등록서류를 받은 사찰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신도등록부에 기재하고 교구본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직할사암의 경우는 포교원에 직접 제출. 신도등록서는 각 사찰 및 포교원(02-720-7060)에서 배포하고 있다.

성철스님문도회가

성철선사상연구원을 설립하고 학술연구비 지원 및 불교학술상을 제정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이래
그 혜명을 전하는 역대조사들의 등불은 훨훨 타올랐고, 그 중에서도 선종은
"直指人心 見性成佛"의 깃발 아래 자기의 본성을 단박에 깨쳐서
부처의 수행을 무심히 실천하는 종풍을 드날려 왔습니다.
그러나 종종 異說로 인하여 본래의 정신에서 일탈된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안의 종사가 출현하여 철저한 수행과 확연한 언어로
돈오돈수의 本地風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육조 혜능선사의 宗風이 그러하였고,
조선에서는 태고 보우선사의 法脈이 그러하였고,
오늘날은 퇴옹 성철선사의 家風이 그러합니다.
이에 성철스님문도회에서는 그 종풍과, 그 법맥과, 그 가풍을 오늘에 계승하고자
성철선사상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위원을 모집하여 자체의 연구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학술연구비 용역 지원사업 및 불교학술상을 제정하여
불교 연구인의 양성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성철선사상연구원이 시행하는 학술연구비 용역 지원사업 및 불교학술상 제정에
사부대중은 물론 역량있는 연구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성철스님문도회
성철선사상연구원

학술연구비 용역 지원 요강

▶ 지원부문 --------- 선불교 및 일반불교의 개별연구 또는 공동연구
1) 성철선사의 어록 및 사상
2) 선불교 및 선서번역
3) 불교 일반 연구
4) 불교와 인접학문 및 과학

▶ 신청기간 --------- 1996년 4월 15일(월) ~ 4월 30일(화) 18:00

▶ 지원자격 --------- 지원 해당 부문의 전공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신청방법 --------- 학술연구비 지원요강을 참조하여 소정양식에 따른 서류를 본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 소인이 찍힌 서류는 유효합니다)

▶ 선정발표 --------- 본 연구원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6년 5월 20일(월)까지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지함

▶ 제출 및 문의처 --- 우편번호 100-380
서울시 중구 묵정동 18-27(대학문화원 207호)
성철선사상연구원 학술연구비지원심의위원회 담당자
전화/(02)265-5215
팩스/(02)265-5216

▶ 기타 ---------- 1) 요강 및 신청서식과 디스켓은 본 연구원에서 배부함
2) 제출된 신청서 및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선정된 원고는 본 원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으로 출판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연구원으로 문의를 해주십시오.

불교학술상

96년 한해 동안 발표한 논문 중에서 우수작 1편, 가작 2편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출가-열반절 특별법회안내

강남포교원(02)539-2631
3월 26일 오후7시30분
성열스님-출가재일 수계식
3월 27일 오후7시30분
무진장스님-현대와 불교사상
3월 28일 오후7시30분
암도스님-일상생활속의 보살행
3월 29일 오후7시30분
각현스님-고령화시대의 불교
3월 30일 오후7시30분
월운스님-불자의 염불수행
3월 31일 오후7시30분
지민스님-여성불자의 사회적 역할
4월 1일 오후7시30분
조각스님-한국불교의 미래
4월 2일 오후7시30분
인환스님-선수행과 정신건강

더각사(02)765-0972
기념법회 3월 26일~4월 2일 매일 오전10시

부처님 사리친견 3층 법당

삼광사(051)808-7111
기념법회 3월 26일 오전11시

선암사(0661)54-5246
기도법회 3월 26일~4월 2일 오전10시

석왕사(032)663-7771
수계식 3월 26일 오후7시

구룡사(02)576-4504
발심정진기도 금강경 사경법회 3월 26일~4월2일 오전9시

봉은사(02)511-6070
특별기도법회 3월 26일~4월 2일 오전10시

경국사(02)914-5447
주마경 7일기도 3월 26일 ~4월 1일 오전10시

광명선원(02)584-1108
기념법회 3월 26일 오전10시

극락정사(02)814-9670
기념법회 3월 26일 오전10시
방생법회
장소: 광나루 오후1시 출발

용주사(0331)34-0040
기념법회 3월 26일~4월 2일 오전10시

도선사(02)993-3161
백일기도 3월 26일 오전10시

불광사(02)413-6060
기념법회 3월 26일 오전10시30분

영화사(02)444-4321
기념법회 3월 26일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교차로

청와대 환경복지회의 참석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환경복지 회의에 참석했다. 각계 대표 2백여명은 이날 회의에서 환경공동체를 건설키로 했다.

6개市서 자연보호 캠페인



법정스님(맑고 향기롭게모임 회주)이 지난 24일 서울·대전·부산·전주·춘천·제주 등 6개 도시에서 동시에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라는 주제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서는 연꽃스티커와 자연을 사랑하자는 내용의 전단 배포, 쓰레기 수거작업을 펼쳤다.

실버타운 성라불국토 준공



법성스님(성라원 이사장)은 오는 28일 오전11시 가평 현지에서 2천여평 규모의 성라 불국토(실버타운) 준공식을 봉행한다.

범어사 주지 취임식



성오스님(범어사 주지)이 지난 15일 범어사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로 취임했다.

국회정각회서 법문



원택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20일 국회정각회 법회서 법문했다.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법회



혜총스님(부산 감로사 주지)은 오는 28일부터 4월1일까지 감로사 대강당에서 지관, 인환, 정관스님 등을 초빙하여 제14회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를 봉행한다.

불교대구교육원장 취임

태일스님(대구 사원련 총무부장)은 오는 29일 오후2시 고려예식장에서 열리는 불교대구교육원 개원8주년 기념법회에서 신임원장으로 취임한다. 신임 이사장에는 운성스님(광덕사 주지)이 취임한다.

제주 대원정사 상량식

일조스님(법화종 제주 종무원장)은 오는 31일 정오 제주 대원정사 상량식을 봉행한다.

대원복지재단에 30억 전달



장상태회장(동국제강)은 지난 20일 부산지역 소년·소녀 가장돕기와 장학금지원 등을 위해 '대원복지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출연금 30억원을 복지재단 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장회장은 향후 3년간 모두 1백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경기대 최고관리자과정 입학



서재하법사(청담고명예교장)는 77세의 고령으로 최근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에 입학했다.

불교대책위 부위원장에



김성호씨(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가 지난 8일 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불교대책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간병인 대상 염습 강의

김정자원장(부처님마을 자광원)이 오는 4월 1일 오전10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간병인교육 과정으로 염습을 강의한다. (0342)759-5320

대구 자원봉사센터 소장에

김상길씨(대불청 대구지구장)는 오는 28일 오전10시 대구불교대학 강당에서 열리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자원봉사 대구센터 개원식에서 초대소장으로 취임한다.

인사

동국대 △교무처 교무부장 신일식 △총무처 총무부처장 박종환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손상길 △정보산업대학원 교학부장 유풍운 △학생처 학생부처장 선상규 △기획조정실 기획과장 신태근 △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과장 차준환 △분당한방병원 사무국장 문첩 △학생처 취업과장 김칠석

총지종 제10대 통리원장 법공 대정사



"내달 총지대학을 개교하고 복지법인 설립 추진, 법장원 중앙교육원 활성화, 청소년수련원 증축및 전 사찰의 학생회조직결성등을 통해 종단발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지난달 15일 총지종 총회에서 "종단을 시대에 맞게 변화하여 발전의 틀을 잡아야한다"는 종도들의 여론에 따라 제 10대 통리원장에 50대 초반의 법공대정사가 선출됐다.

신임 법공통리원장은 "청소년수련원을 증축하는 등 청소년포교를 위해 전 사찰에 불교학생회의 조직결성에 종단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소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4월에 총지대학을 개교하여 교역자 및 교도교육, 일반인포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학교법인 대동학원을 발전시켜 점차적으로 고교와 정규대학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규대학 설립·청소년 포교 강화

이와함께 "올해 부산 삼밀사를 필두로 전당건설을 군지역까지 확대하고 금년 종책사업으로 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종단수익사업과 양로원등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30일 복지관건립 자선대법회 여는 성운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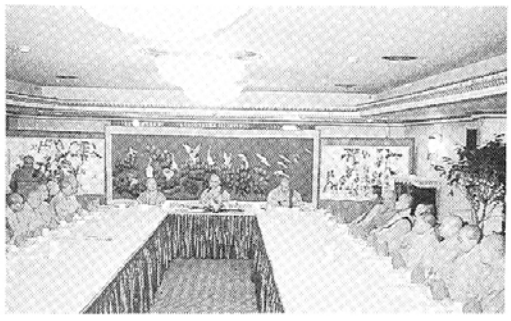


위한 자선대법회를 봉행한다. 인덕원은 현재 은평구 진관외동에 대규모 종합복지관을 공사중인데, 대지 2천여평에 건평 7백여평,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올 가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관의 여법한 건립을 기원하기 위해 30일 열리는 대법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2부는 코미디언 김병조씨와 탤런트 김영애씨의 공동 사회로 나문희 김국환씨등 많은 가수, 탤런트들이 나오는 축하공연으로 진행된다.

"복지불사 수행방편 삼을터"

"복지는 수행을 현실과 접목시키는 실천행입니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가정복지 등 이웃과 함께 상구보리 하화중생하고 싶습니다."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하고 은평구 개나리 어린이 집등 3개의 어린이 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성운스님(삼천사 주지)이 오는 30일 오후 5시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복지관건립을 위한 자선대법회를 봉행한다. 인덕원은 현재 은평구 진관외동에 대규모 종합복지관을 공사중인데, 대지 2천여평에 건평 7백여평,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올 가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관의 여법한 건립을 기원하기 위해 30일 열리는 대법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2부는 코미디언 김병조씨와 탤런트 김영애씨의 공동 사회로 나문희 김국환씨등 많은 가수, 탤런트들이 나오는 축하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성운스님은 "조계종 교구별로 종합복지관을 하나씩 운영하는 등 복지사업에 불교계가 적극 앞장섰으면 한다"며 이번 대법회가 교계의 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을 다시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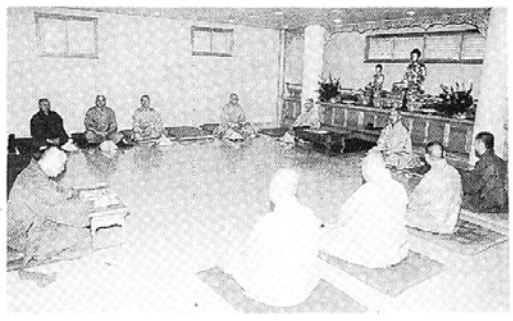
이경숙 기자



월주스님 비구니 중진스님과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8일 시내 모 음식점에서 비구니중진스님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우(전국 비구니회 회장), 진관(진관사 주지)스님등 비구니 중진스님 16명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구니스님 참정권확대 △비구니 단일계단에서 비구대신 비구니스님의 강의 △비구니회관건립지원등을 총무원장에 요청했다.



설정스님 중진초청 간담회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설정스님은 지난 21일 서울 법련사에서 교계 중진스님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27일 개최되는 종회에 앞서 종회 운영활성화와 종단발전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녹원 월탄 성타 종하 송산 정휴 현호 지형 영배스님 등이 참석했다.



생명나눔실천회 창립2돌 법회

(사)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2주년 기념법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20일 화계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각현(연꽃마을 이사장)스님, 박선영(동국대) 박광서(서강대) 조사선(서울대)교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또 2년동안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1천1백12명으로 집계됐고, 김정아씨가 자원봉사자상을 수상했다.

게시판

▲꽃꽂이 수강생 모집=대한불교 법사회는 불교전통 꽃꽂이를 배울 수강생을 모집한다. 초·중·고급 사범반 등의 과정으로 강사는 박귀달씨. 4월 4일 개강. (02)264-1827

▲일일찻집=대구불교학생회 지도교사협의회(회장 김형중)는 오는 31일 전통찻집 다울터에서 불교학생회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개최한다. (053)427-4282

▲문화교실=석왕사청년회는 4월 한달 불교학교, 영화·풍물교실, 사찰순례 등의 문화교실을 연다. (032)668-0076

▲양재교실=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종실)은 오는 4월 8일 개강하는 양재교실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3개월 과정, 15명. 선착순. (042)633-1141

▲외국인 성인영어회화=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은 오는 4월 1일 외국인 성인영어회화반을 개강한다. 3개월에 9만원. (02)421-6077

▲문화강좌=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부 및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홈패션, 양재, 피부관리, 주부 건전가요등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062)266-3853

▲고구려·발해 역사기행=정토회국제사업부는 제3차(7. 21~7. 28), 4차(8. 12~8. 21) 백두산 및 고구려·발해 역사기행을 갖는다. 접수마감은 3월 30일까지. (02)525-7264~5

강원불교대 시장·군수 입학 화제

지난 14일 춘천 석왕사 무설전에서 열린 강원불교대학(학장 백운·석왕사 주지) 제6기 입학식에서 2백60여명의 신입생중 김인기 동해시장, 이춘섭 홍천군수, 홍은표 화천군수 등 지자체 단체장들이 대거 입학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김인기 시장



◇이춘섭 군수

이들 단체장들은 접수번호도 84, 85, 86번으로 나란히 접수했으며 모두 통신반과정에 입학했다.

김인기 동해시장은 삼보사찰로 시민화합과 지역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춘섭 홍천군수는 석왕사 신도로 재정공개와 생활민원해소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 홍은표 화천군수도 공익성과 공정성등 불교사회사상을 널리 펼쳐 군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불자단체장들이다.

독실한 불자로 지역사회에 정평이 나있는 이들 지자체 단체장들은 "불교교리를 통해 신심을 기르고 지역행정에도 자비심과 하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입학소감을 피력했다.

김원우 기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일류 문화유산

한글대장경

민족의 자존심 국보 팔만대장경

● 현재 195권 간행 보급중
● 98년까지 250권 완역예정

▶정가 1권 12,000원
▶1권당 700쪽 내외 호화양장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구입처

TEL: (02)269- 2972 , 275-4391



· 동국역경원은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지 아니한 한역장경 (漢譯藏經) 및 팔리어장경 (巴利語藏經), 범어장경 (梵語藏經) 그리고 한국고승문집 (韓國高僧文集)을 번역한 **한글대장경**의 발행과 기타불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문고본[現代 佛敎新書]과 단행본의 출판을 목적으로하고 1964년 7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삼대사업 중 하나인 역경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역경위원회의 번역원고를 출판, 보급하기위하여 동국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발족.

· 주요활동사항

동국역경원은 **한글대장경**과,현대불교신서, 불교총서, 기타 단행본 여러종을 간행하였으며, 역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활동중.

한글팔만대장경 목록

01. 장아함경
02. 중아함경 1~3
05. 잡아함경 1~3
08. 별역잡아함경
09. 증일아함경 1~2
11. 대루탄경 (외)
12. 불반니원경 (외)
13. 아라한구덕경
14. 비화경 (외)
15. 불본행집경 1~2
17. 찬집백연경
18. 현우경 (외)
19. 출요경 (외)
20. 법구경 (외)
21. 대반야경 1~20
41. 법화경
42. 화엄경(60권본) 1~3
45. 화엄경(80권본) 1~3
48. 화엄경(40권본)
49. 열반경 1~2
51. 대방등대집경 1~2
53. 대애경 (외)
54. 아차말보살경 (외)
55. 대집회정법경 (외)
56. 현겁경 (외)
57. 유마경 (외)
58. 입능가경 (외)
59. 정법 염처경 1~3
62. 사분율 1~3
65. 선견율비바사
66. 구사론 1~2
68. 중론백론
69. 희양 성교론 (외)
70. 대승기신론 소별기
71. 부휴당집 (외)
72. 선문염송 1~5
77. 조당집 1~2
79. 전등록 1~3
82. 무용당집 (외)
83. 백곡집, 월저당집
84. 법원주림 1~5
89. 경율이상 1~2
9'. 본생경(쟈아타카) 1~5
96. 대보적경 1~5
101. 대지도론 1~5
106. 종경록 1~4
110. 유가사지론 1~4
114. 불성론
115. 아비달마집이문족론
116. 아비달마식신족론외
117. 아비달마품류족론외
118. 아비달마대비바론사 1~8
126. 십송율 1~3
129.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1~2
131. 정법화경 (외)
132. 예념미타도량참법
133. 대비로자나성불가지경
134. 기세인본경
135.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136. 해심밀경소 1~2
138. 해동고승전 (외)
139. 대각국사문집외 7 .
140. 범망경술기 (외)
141. 화엄경탐현기 1~4
145. 근본설일체유부비나잡사 1-2
147. 십주비바사론 (외)
148. 부자합집경 (외)
149. 무량청정평등각경 (외)
150. 대승보살장정법경 (외)
151. 니야야빈두 (외)
152. 성실론
153. 지체와 자비의 말씀(외)
154. 대승본생심지관경 (외)
155. 방광대장엄경 (외)
156. 과거현재인과경 (외)
157. 문수사리문경 (외)
158. 무소유보살경 (외)
159. 금색동자인연경 (외)
160. 보살영락경 (외)
161. 심밀해탈경 (외)
162. 제법집요경 (외)
163. 십력경 (외)
164. 보우경 (외)
165. 본사경 (외)
166. 보조국사집
167. 나옹화상집 (외)
168. 원감국사집 (외)
169. 소요당집 (외)
170. 반니원경 (외)
171. 불본행경 (외)
172. 불퇴전법륜경 (외)
173. 수능엄경
174. 도행반야경
175. 아비담팔건도론
176. 아비달마발지론
177. 아비담심론
178. 아비달마순정이론 1
179. 아비달마순정이론 2
180. 아비달마순정이론 3
181. 아비달마순정이론 4
182. 아비담비바사론 1
183. 아비담비바사론 2
184. 아비담비바사론 3
185. 사리불아비담론 1
186. 사리불아비담론 2
187.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
188.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
189. 근본설일체유부니타야목득가
190. 근본설바다부율섭
191. 마하승지율 1
192. 마하승지율 2
193. 성유식론
194. 대방광십륜경
195. 해탈도론

'생명에 대한 책임' 경영화두

산문밖의 禪

일양약품 정형식 회장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

1946년 첫 문을 연 (주)일양약품의 캐치프레이즈다. 뿐만아니라 맨주먹으로 회사를 일으켜 50년을 경영현장에서 뛰어 온 정형식(鄭亨植·75세)회장의 경영 신조이기도 하다.

금탑산업훈장 '영예'

지난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3회 상공의 날 기념식장에서는 이 기업정신이 더욱 새로운 빛을 받았다. 정회장이 산업훈장 중에서도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창업 반세기라는 의미를 지닌 올해에 이같은 훈장까지 차지한 정회장은 거듭거듭 '생명에 대한 책임'을 생각했다. 이제 기업으로서 굳은 자리를 확보한 일양약품의 위상에 어울리는 책임을 앞으로 더욱 빛나게 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정회장을 숙연케 했다.

다른 어느 기업보다 제약회사는 생산품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갖는다. 생명을 다루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하며 참선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집의 불교신행입니다. 온 가족이 불암사를 다니며 정진하는데 그러한 공덕이 오늘날 일양약품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회장은 50년간 기업을 이끌며 단 한번도 노사분규로 회사가 혼란에 빠진적이 없었던 것도 부처님의 화합에 대한 가르침을 잊지 않은 덕분이라고 말했다.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연기법을 생각하며 노사가 가슴을 열고 대화하는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고리가 저절로 풀려지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의 씨앗이 자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공부하는 경영인'으로도 통하고 있는 정회장은 무엇이든 한번 의심을 내면 풀고야 만다. 그 의심이란 신제품 개발에 대한 가능성,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발전 회사와 사회복지의 실현등에 대한 스스로의 집념이다. 고려인삼으로 만든 '원비'와 영지버섯으로 만든 '영비천'을

의심내면 풀고야마는 기업인 '신약개발' 50년
연기법 생각하며 노사대화…분규 한 건도 없어

그래서 무엇보다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면에 있어 정회장은 불교가 가르치는 생명관을 확고히 지니고 있다. 몇 안되는 노경영자중 한 사람인 정회장은 선대부터 이어져온 불자집안의 가풍을 토대로 생명의 존엄성을 삶의 철학으로 체득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바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대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노병사의 고통을 여읜 해탈이 곧 무한한 생명의 절대자유이니 부처님께서 밝혀 놓으신 법이 모두 참생명의 도리아닙니까. 우리 회사의 신념 또한 건강한 생명을 지키는데 있으니 이것은 개인의 종교를 초월한 경영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일일불선념 제악개자기(一日不善念諸惡皆自起). '하루도 착한 일을 생각하고 행하지 않으면 온갖 불행이 스스로 일어난다' 이것은 정회장 집안에 가훈처럼 내려오는 신행지침이다.

"복을 빌기에 앞서 불교 교리를 공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것이나 최초의 기업 민속씨름단 결성, 기업내의 광범위한 복지시설 등이 그가 일으킨 의심에 대한 결과로 실현됐다. 인삼이나 영지버섯을 원료로한 제품생산에 있어 정회장은 특별한 공을 들였다. 최근에는 항암·면역증강 효과가 있는 특수 영지균주를 개발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우리 것의 우수성을 세계적 경쟁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성장과 우리 문화의 세계화란 두가지 화두를 한꺼번에 풀어낸 셈이지요."

가난했던 청년시절의 배고픔을 잊지 않는 것도 정회장에게는 '쌉쌀한 활력소'다. 아직 60대 초반쯤으로만 보이는 정회장은 "마음이 건강해서 몸도 건강하다"며 그 마음의 건강은 젊은 시절의 고난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좌절의 대가는 실패이지만 집념을 잃지 않는 도전의 대가는 성공이라는 진리를 일찍부터 몸으로 배웠던 것이 오늘의 노경영인을 있게한 것이란 설명이다.

해방 이듬해부터 오늘날까지 단 하루도 평탄한 날은 없었다.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에게 지난 50년은 매일매일이 '도전과 응전'의 현장이었다. 사세의 확장, 신제품 개발, 판매전략, 인사관리, 해외공장 건설과 관리, 생산성 증대, 국내외 경쟁력 제고… 이런한 화두풀이 속에 반세기가 하루같이 지나가 버렸지만 정회장은 정작 풀어야 할 화두 하나를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온가족 불암사 신도

"다름아닌 생명에 대한 책임이라는 우리 회사의 캐치 프레이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결국 정회장도 50년을 가슴에 안고 살아 온 그 화두를 풀기 위해 수많은 화두들을 뿌리채 캐내며 경영현장을 뛰어온 것이다. 경영을 통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가 정회장의 가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에 대한 책임'이란 화두가 먼저 풀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화두풀이는 앞으로 더 많은 신제품과 더 많은 공장건설과 더 높은 경쟁력 제고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풀리지 않은 그대로가 더 발전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나는 왕성한 의욕이 있습니다. 이 기쁜 훈장도 그 의욕을 더욱 발산시키란 채찍일 것입니다. 좀더 연구하고 뛰면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나를 매진시키겠습니다."

매년 초파일이면 40여개 사찰에 1만병의 '원비'와 '영비천'을 보내는 정회장은 해마다 불암사 신도회장으로서 부처님께 올리는 봉축사를 통해 "우리도 부처님을 따라 거리에 이웃에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밝은 등불을 켜자"고 발원한다. 모든 생명이 함께 잘 사는 곳이 바로 극락임을 믿기 때문이다.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도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우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무엇보다 귀한 경영철학과 인간존중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경영이란 화두를 들고 있고 부처님은 만생명의 자유라는 절대진리를 보이셨으니…"

임연태 기자

스님들께서 국사 도울수 없는지

문 예전엔 국사·왕사가 있어서 국정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엔 그런 제도가 없지만 스님들 나름대로 그런 소임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는 그같은 일을 자임하실 수는 없는지요.

〈장유성·대구 달성군 논공면〉

답 부처님께서는 국사니 왕사니 그런 이름을 갖지 않으셨어도 전 세계뿐만아니라 삼천대천세계 우주 전체를 한 손아귀에 넣고 중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사람들이 부처님께 열가지 명호를 붙여 드리면서 따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스님들이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를 떠나서 여러방면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나라 일을 돕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스님이 어떤 일을 했다는 식으로 딱 부러지게 답이 나와야 뭔가 일을 했구나 하시겠지만 스님들이 마음속으로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하겠구나' 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법은 그래서 묘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유가 붙질 않습니다.

원력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고 내가 했다, 네가 했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굴렸을 뿐인 것입니다.

태양이 내리쪼이는데 각자 알아서 볕을 쬐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고 내다 말릴 것은 내다 말리고 그늘에 둘 것은 그늘에 두듯이 세상 일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법은 여여합니다. 문제는 형상에 얽매여 좋다, 나쁘다 하면서 자꾸 기복으로 흐르는 일이지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치우치니까 세상이 귀신들로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도인스님이 왜 망국을 막지 않나요

문 스님, 티벳엔 달라이라마와 같은 큰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나라는 지금 중국의 발굽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한일합방 당시 우리나라에도 도인스님이 많았을텐데 나라를 잃고 오랜동안 잔학한 압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일을 막을 힘은 없었던 것인가요?

〈홍국한·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답 세상을 바라보되 밝게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사물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안목입니다. 그것은 세상 일을 좁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령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나, 도인이든 아니든 '이렇게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안되었다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됐다가 안됐다일 수 있고 안됐다가 됐다일 수 있습니다. 방편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시절엔 그쯤밖에 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닦고 바르게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기복에 매달려 남보다 더 가질려 하고 욕심이나 충족시키려 한다면 그게 삼독심인데 삼독심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좀 다른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공산주의는 원래 콩 한조각이라도 나눠먹자는 불교적 정신에서 출발한 것인데 본뜻에서 빗나간 결과로 진짜 맛을 보지도 못하고 쇠락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근본을 놓쳤기 때문이지요.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아니 불자들만이라도 바른 수행을 한다면 결과도 달라지게 되겠지요. 일본사람들, 우리 역사를 짓밟았지만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면 기특한데가 많습니다. 사찰의 발우공양을 본떠서 공기밥을 먹는 것만 보아도 그 문화가 제법 반듯하지 않던가요? 환경문제로 야단들인데 밥알 한톨 흘리지 않으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가르침을 잘 지키는 셈이 되겠지요.

우리나라는 조선조 5백년만하더라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진리의 가르침을 묵살했지요. 그나마 반쪽이 되어 이 고생들인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할 줄을 모르니 걱정이지요.

아무튼 사람들이 깨이지 못한만큼 그에 따른 방편은 여러가지일 것입니다. 달라이라마가 있는데, 큰스님이 많은데 티벳이 왜 저 모양인가 하고 의아해 하시기 전에 저건 무슨 방편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그렇다 하지 말고 나름대로 굴려 놓고 지켜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업장이 사라지는지

문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가까이 지내는 법사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보살님의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 열심히 해서 업장을 녹여야 괜찮아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 이렇게 여쭙니다.

〈최인순·서울 종로구 평창동〉

답 금강경에 삼세심불가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어느 심에 업장이 쌓여 있을까요?

일체는 공해서 돌아갑니다. 마치 프로펠러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디에 먼지 붙을 자리가 있을까요. 업장이 두텁다니 도대체 무슨 업이 붙는다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업이 붙는다면 바로 업이 있다는 그 관념 때문에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제발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은 일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 '불가득'이라고 한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것이 불가득이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법무아요 제행무상이며 연기는 바로 공도리임을 부처님께서 누누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고집멸도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멸제 도제의 가르침이 있는데 업장은 무슨 업장인가요. 그런 생각 몽땅 내던지세요.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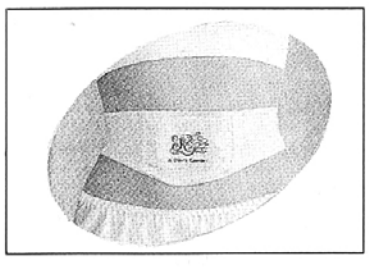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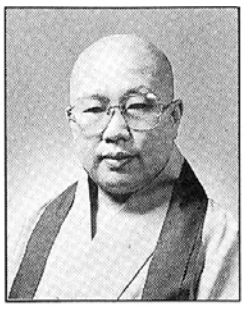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妙心스님 音樂活動 回向紀念



신체장애자 돕기
慈善 音樂會

출연진

· 메조소프라노 : 묘 심 ··· 금강선원 원장
· 소 프 라 노 : 권영희 ··· 제주대,군산대 출강
· 테 너 : 이춘기 ··· 제주대 음악과 교수
· 테 너 : 조영수 ··· 부산 예술대 교수

찬조출연 : (가수) 조영남

• 불교서정가곡의 매력에 심취되어 이 음악회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 피 아 노 : 이희열

출연단체

• 청 룡 마 야 합창단 : (지휘) 정옥녀
• 비 로 자 나 합창단 : (지휘) 조영근

■ 일 시 : 1996년 6월 5일 오후 7시
■ 장 소 :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452 - 0002)
■ 주 최 : 소리샘 예술기획 (596 - 7162)
■ 후 원 : BBS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한국불교음악연구원, 수국사합창단, 중앙합창단, 인천동암사합창단, 부산우담바라합창단,부산삼광사합창단, 부산한마음선원합창단, 금강불교합창단, 청룡마야합창단, 부산불교연합회합창단
■ 협 찬 : 불교여래원



◇신라시대 유행했던 사리장엄방식을 보여주는 월성 오층석탑 금동사리함이 열린 모습.

신라 사리장엄방식 연구 자료

월성 오층석탑 금동사리함 발견 의의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월성 나원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함 안에 들어 있는 금동탑은 신라시대 유행했던 사리장엄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탑속에 작은 소탑을 봉안한 이와 같은 방식은 99기의 작은 탑을 만들고 그 속에 4종 다라니를 써서 넣어 불탑 속에 공양하면 9만9천의 불사리탑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소탑공덕에 대한 당시의 신앙심의 표현양식이다.

보통 99기나 77기의 소탑을 만들어 공양하는데 이는 당시 선호하던 숫자가 7과 9였으며, 양수(홀수·고대 사회에서 吉數로 간주함)를 한정없는 무한한 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소탑봉안은 또 공덕을 쌓는다는 의미 외에도 죽은 이를 추모하고 산 사람의 현세와 내세의 복락을 구한다는 신앙심이 깃들어 있으며, 신라불교의 특색인 호국불교의 의미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조사된 탑으로 99개의 소탑을 지니고 있는 석탑으로는 대구 동화사 금당 서탑과 경북 봉화 서동리 동탑, 불국사 석가탑, 황룡사지 9층탑 등 수많은 고대의 탑이 이같은 소탑 공양의 법식에 의해 건립됐다. 특히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세계 최고의 목판경전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탑 내부의 사리장엄과 소탑 99기 봉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 법사리 공양에 따른 당시의 신앙심과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영락·풍경등 손상안돼
소탑신앙·사회상 보여줘

장충식 동국대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금동탑에 대해 "신라시대 탑으로 영락장식과 풍경이 손상되지 않은 채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신라탑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삶속에 정법실현 '승가 의무'

선우도량 '미래사회와 승가상' 세미나



◇홍선스님



◇종림스님



◇법성스님

열린사고 바탕 문화·사상운동 이끌어야
단순지식 전달보다 정보 생활접목 제시

미래사회에 있어 승가의 존재가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승풍진작과 승려의 기강확립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3일 실상사에서 선우도량(상임대표 혜탑)이 '미래사회와 승가상'이라는 주제로 수련결사를 갖는다.

'미래사회와 승가'라는 기조강연을 담당한 홍선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미리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려지고 그 삶을 통해서 정법의 실체를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이 승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자비가 곧 여래요, 여래가 곧 자비이며, 대자비가 곧 불성'이라는 열반경을 예로 든 스님은 "이는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승가사회 속에서 이러한 사상이 과연 살려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론(경학)과 실제(깨달음)가 어우러지지 못하고 목적만을 향한 무분별한 방법과, 과정과 수단을 등한시하는 승가 자신의 편견이 미래사회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요인일뿐 아니라 스스로 설 자리를 잃게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미래사회로의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경전말씀으로의 다각적이고 심도깊은 접근과 의지를 제안했다. 스님은 또 〈유마경〉의 불이법문(不二法門), 〈화엄경〉의 중중무진 사사무애(重重無盡 事事無碍)의 법문, 〈법화경〉의 구원실성(久遠實成)의 법문으로의 접근은 물론 이것이 수행하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승가교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승가 자신들 또한 열린 사고로써 갈등과 도전의 본질을 보는 눈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디사트바, 그 역사적 변용'을 제목으로 발표하는 법성스님(선우도량 교육위원장)은 승가를 각(覺)운동의 주체로 보고, 승가는 생활문화 정치문화운동의 주체로서 활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스님은 사상과 수행의 근거지로서의 아란야(사찰의 의미)는 그러한 문화운동, 사상운동의 기지로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스님은 신·구·의·서원 안락행(身·口·意·誓願 安樂行)을 행하는 보디사트바의 승가적 구현이 미래사회의 승가상이라고 제시했다.

'미래사회의 승가상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는 종림스님(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은 "앞으로 종교의 사회적인 영역은 점점 축소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승가상 확보는 '기대와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아라한적인 태도나 선적인 방법에 미래의 승가상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승가는 정보화 사회에서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홍수처럼 불어나는 정보를 대중들이 생활과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 혜담스님(선우도량 상임대표)이 초기불전, 대승경전 등 '경전에 나타난 승가상'에 대해 발표하며 원철스님(해인사 승가대학 중강)과 지오스님(불광사 주지)이 각각 논평자로 나선다.

도필선 기자

국보급 아미타입상도·탱화 발굴

민간소장가 작년 日서 반입

고려불화와 조선불화 연구에 획기적 연구자료가 될 국보급 불화 2점이 발굴됐다.

이들 불화는 14세기에 제작된 고려불화 '아미타여래입상도(阿彌陀如來立像圖)'와 1681년에 그려진 '감로탱화'로 지난해말 한 소장가가 일본에서 들여와 국보 지정을 신청,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미타여래입상도'는 대부분 아미타여래가 좌측으로 몸을 틀어 팔을 뻗고 있는 측면상인 것과는 달리 비단 바탕에 정교한 채색을 구사하며 정면상을 취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비단바탕 채색 정면상

아미타입상도 감로탱화

금박장식등 양식 특이

이와 함께 이번에 국내에 반입된 '감로탱화' 역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감로탱화(1649년)에 이어 두번째로 제작연대가 오래된 것으로 우측 하단에 그려진 아귀의 벌린 입안에 사람 둘이 그려져 있고 중단에 보이는 산수묘사에는 군데군데 금박장식을 넣는 등 표현양식이 특이해 조선중기 감로탱화에 또다른 양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홍윤식교수(동국대 박물관장)는 "이번에 발굴된 아미타여래 입상도는 속살이 비치는 비단표현 등 전형적인 고려불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양식적 가치 외에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14세기 고려불화로 대부분이 측면상인 것과 달리 특이하게 정면상을 취한 국보급 아미타여래입상도.

얼마전 국내 최초로 감로탱화 자료집을 펴낸바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강우방 학예연구실장은 감로탱화에 대해 "조선중기 감로탱화 양식과 조선후기 양식을 연결해주는 고리에 해당하는 귀중한 연구자료"라고 평가했다.

"교계현안 정치공약화 하라"

불기협 '15대총선 토론'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교계의 적극적인 의견표출이 부족하여 불자들의 정치의식을 둔화시켰다는 주장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불교계의 현안을 정치 공약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가 지난 1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주최한 '제15대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는 주제의 범불교도 대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종교편향·환경문제 등 해결의지 있는 후보 선택"

성태용교수(건국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한 심익섭교수(동국대)는 '지방자치제 1년과 불교계의 동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난해 지방자치선거는 본격적으로 불교가 나름대로의 자기목소리를 갖고자 노력했던 전환점이었다"고 전제하고 "김영삼정권의 탄생이후 정부의 종교편파성을 제거하기 위해 불교계가 국가권력 감시역할, 시민의식 제고역할등 4·11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교수(국민대)는 '4·11 총선을 맞는 불교도의 자세'에서 "인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전한 비전과 상식 그리고 의지와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중시해야 한다"며 "불자들은 종교적 편향성, 환경문제, 전통문화에 대한 상식을 가진 후보를 판단하여 투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재지도과장은 '종교활동과 선거법 적용'이라는 주제를 통해 "불교단체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결의하고, 불교단체명의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권유할 수 없다"며 "사찰에서도 법회에서 신도들에게 후보자를 통상의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은 무방하나 스님이 신도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효림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정천구교수(인천대), 연기영교수(동국대)는 불교정책의 부재는 정교유착에서 기인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불교정책을 반영 할 수 있는 인물이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산청 나한전 석불상등 5점
경남도 문화재·자료 지정

경남도는 지난 15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산청 심숙사 나한전 석불상과 거창 송림사지 석조여래좌상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경남도는 또 밀양 만어산 어산불영을 기념물로, 함양 영은사지 석장승을 민속자료로, 거창 성암사를 문화재자료로 각각 지정했다.

동대 '신라문화 12집' 발간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는 최근 '신라문화' 제12집을 발간했다.

이번 12집에는 '철제농기구 소유변화에 대한 검토' '상고기 신라육부의 성격에 대한 고찰' 등 모두 8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日 사천왕사·법흥사·법륭사 백제인 솜씨"

김정동교수 양국 사서·서기 기록 토대 입증

일본의 사천왕사, 법흥사, 법륭사는 6세기경 백제시대 건축가들이 일본에 건너가 인력과 기술을 동원 절을 건축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3곳의 절이 백제 고유의 유형과 동일한데다 이들 절을 지어줬다는 우리나라의 사서류와 일본서기의 기록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김정동교수(목원대 건축공학과)는 일본교포사회에서 발간되는 아리랑誌 최근호 '일본속의 한국건축현장' 코너에서 '우리도 잊어버린 백제의 건축가들'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 글에서 일본서기 중 32대 수시윤 천왕 원년(588) 3월에 '백제 위덕왕이 와박사 마나부노, 능귀문, 양귀문 등을 보내줘 기와 굽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기록돼 있으며, 우리 사서류에서는 '588년 백제의 27대 위덕왕의 재위기간에 백제는 건축, 미술가 집단을 일본에 파견해 아스카데라(飛鳥寺)를 세워줬다'고 기록하고 있어 연대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전통 불교 의식 교육

한국 불교 전통 의식의 계승과 후진을 양성하기 위하여 강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1996년 3월 27일(음력 2월 9일)~4월 1일(음력 2월 14일)까지 5박6일 간
- **장소** :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승달산 선혜정사
- **참가 대상** : 종단을 초월한 모든 사부대중
- **강습 내용** : 안차비, 권공 및 작법 등
- **초청 강사 스님** :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이일응 스님
- **강습비** : 5만원(숙식제공)
- **교통편** : 광주고속 터미널(목포 무안 방면) → 무안 직행버스 터미널 하차 → 무안 군내버스(몽탄 방면) → 몽탄역 앞 하차 택시(5분 거리) → 선혜정사
- **연락처** : 전남 무안군 선혜정사 (전화 0636/52-3508)
  광주광역시 율곡사 (전화 062/263-4575)

한국불교 태고종 선혜정사 능산당 성원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8기 佛敎義式(범음·범패)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 사물(목탁,태징,요령,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법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각 과정)
- **원서접수** : 1996년3월18일~4월23일
- **개강일시** : 1996년4월23일 오후 5시 정각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 옆 경동빌딩 3층
TEL: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儀式敎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입 합창단원 모집

90년 창단, 다수의 공연과 찬불 및 선법가 뮤직비디오를 제작중인 본 합창단은 앞으로도 정기발표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찬불의 소리는 그윽합니다.
동참하셔서 법향 가득함을 느껴보십시오.

· **대상** : 25세 ~ 45세의 여성으로서 성악이나 합창에 소질과 경험있는 분

· **오디션장소** :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 강당 (범일동 국제호텔 뒤)

· **오디션일시** : 1996. 3. 27 (水) 14 : 00
4. 10 (水) 14 : 00

※문의 :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 (051) 634 - 5114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051) 403 - 7077

출가·열반절(불교도 경건주간) 특집

"무집착 출가정신 인류평화 기여"

캘리포니아 주립대 불교학자 자이니교수 인터뷰 대담: 진월스님

3월 26일(음 2월8일)부터 다음달 2일(음 2월15일)까지는 불교도 경건주간이다. 부처님의 출가일과 열반일을 잇는 이 기간동안 전국 사암과 불교단체는 다양한 행사와 정진법회를 개최한다. 불기 2540년 불교도 경건주간을 맞아 진월스님(미 버클리대 박사과정)이 미국의 원로 불교학자 자이니 교수를 만났다. 〈편집자 주〉

진월: 부처님의 출가가 갖는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전생에 없었던 출가

자이니: 부처님 출가의 중요성은 그의 보살행뿐만 아니라 교육자적 삶에 중심이 되는데 있습니다. 이는 그의 전생에 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건입니다. 상좌부 본서나 오백여 전생담(자타카)에서도 전생에 그가 출가하여 수도승이 되었었다는 경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나 왕자, 무사, 어떤 때는 코끼리나 사자같은 동물이 되기도 했고, 비록 한때 고행자(타파스)나 비불교적 유랑자였던 이야기는 있으나 출가자였던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의 이 첫번째 출가 수행자 됨은 과거의 계행이나 보시 좌선 등 여타 행위 등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또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의 출가가 부인이나 부모님들 등과의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불만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개인적 손실이나, 작증 혹은 환멸의 결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보다 앞서 있었던 네가지 목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충격적 광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바로서 그에게 노출되지 않았던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몹시 괴로워하는 병자와 늙은이, 죽은이와 수도자를 보고 위대한 출발의 계기를 가졌다고 전해듣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들로부터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그에게 보편적 고통을 믿는 계기와 심안을 여는 비상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출가는 보편적 중요성을 띤 사건이지 개인적 사건이 아닙니다.

진월: 현대 세계에서 종교적 수행을 위한 출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자이니: 생노병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물론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출가정신은 옛날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실행에 있어서 집착을 버리는 태도의 유지는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무집착의 생활태도는 가정에 있으면서도 수도자의 독신생활을 꼭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절제의 생활로 인도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주요한 세상사들에 관여하면서도 그 출가정신을 상황에 알맞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특히 서양에서는 서양적 가치가 우세하여 수많은 출가 독신 수도자들을 뒷받침할만한 사회가 될수 없을 것이므로, 아마 사회가 저들을 위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저들이 독자적인 자조자립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독신 수도자들의 출가와 같은 형식의 강조는 줄어들겠지만 가정생활속에서도 무집착 정신의 강조는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생활에서의 출가정신을 살려내는데 더 비중이 두어질 것입니다.

> "기독교에는 출가제도가 없습니다 가톨릭도 독신·청빈을 서원하지만 봉사에 의미를 더 둬 지향이 다릅니다"

진월: 불교와 비불교간에 출가전통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은 어떻습니까?

자이니: 불교는 인도종교의 하나로서 인도에서 발생한 다른 종교들, 특히 특정한 기간에 가정을 떠나는 제도가 있었던 베다를 믿는 힌두교와 자이나교 등의 공통적 수행을 따랐었습니다. 그 두 종교들엔 일반 신도들이 외호하는 남녀 출가 수행자들의 제도가 있어 왔습니다. 힌두교도들 가운데는 어떤 조직으로 연합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 사회에서 존중되고 후원되던 수백 수천의 남녀 독신 수행자들(대부분은 남성들이었지만)이 있었습니다. 다른 세계종교들(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을 보면 세상을 떠나 은둔하는 이들을 후원하지 않아 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들은 가족중심의 종교들로서 독신수행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겐 공동체사회가 후원하는 출가자들의 제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들처럼 상담이나 훈육하는 결혼한 교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가톨릭에 출가자적 일을 하는 독신 수행자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나 불교의 수행자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신과 청빈을 서원하지만 특별한 정신적 목적보다는 봉사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지향이 다릅니다. 무슬림의 경우, 이런 성격의 수행을 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비록 검소한 생활을 하는 성인들을 갖고는 있으나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것의 필요를 강조합니다.

진월: 반열반(Parinirvana)은 무엇을 뜻하며, 우리들은 이를 어떻게 우리의 생활속에서 이해하여야 되겠습니까?

생사윤회 끝난 반열반

자이니: '반열반'이란 말은 때때로 '열반'의 뜻으로 쓰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열반'과 '반열반'의 구별을 하여야겠습니다. 비록 이 말들이 때때로 동의어로 쓰이지만 거기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경전에 의거해 보면, 첫 단계는 정각(Bodhi)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 정각의 성취는 이 자체로 열반의 성취로 불립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생사의 윤회를 일으키는 모든 번뇌나 부정한 욕망들이 제거되었음을 뜻합니다. 즉 열반의 성취가 정각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열반이며 진정한 열반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를 이루고 나서도 부처님은 사십 여년을 더 사셨고 팔십 세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 동안에 그분은 아직도 육신의 요구에 따르는 사랑의 삶을 사셨고, 그러한 삶이 이 세상에 유익하게 계속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더이상 재생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의 결과를 아기할 원인들이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단계에서 사람을 구성하는 오온이 해체되고 인과의 사슬에 따라 다시 생성되거나 출현하지 않게 됩니다. 이 윤회적 재생을 최후로 제거함이 두번째 열반으로서 '반열반'으로 불리며 '집대성한 전반적 혹은 총체적' 완전을 뜻합니다. 즉 이 반열반을 성취한 이에게는 생사윤회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활 속의 어디에서 시작하더라도 열반에 부처님은 불교의 창시자가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부처님 이전에는 누구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처님은 불교의 창시자입니다. 서양학자들은 부처님이 불교라고 알려진 진리를 발견하신 한 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시작이 없는 부처님 계통에 더해진 또한 분의 부처님으로 봅니다. 상좌부 교설에서는 부처님이 몇겁전의 연등불 때부터 보살의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역사적이지만 그분이 불교의 창시자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양인들에겐 부처님으로부터 불교가 창시된 것이고 불교인들에겐 불교의 시작이 전혀 없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기 2540년 출가·열반절을 맞아 진정한 출가·열반의 의미와 그 현대적 해석을 세계적인 불교학자 자이니교수(사진 우)에게 들어보았다. 진월스님이 만났다.

진월: 역사적 부처님과 영원의 부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이니: 역사적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 실재했던 부처님을 뜻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적 부처님은 실재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원의 부처님은 실재했던 분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의 부처님은 역사적 부처님을 통해 나타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의 부처님은 역사적 부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다고 믿습니다.

진월: 부처님의 반열반으로부터 기산된 불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이니: 스리랑카, 버마, 태국의 불교도들은 기원전 544년의 부처님 열반으로부터 불기를 시작하는 전통을 갖습니다. 최근까지 서양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시기는 상좌부 전통보다 약 60년 정도 적은 기원전 480년경입니다. 만약 부처님의 일생을 약 80년으로 잡으면 스리랑카 전통의 반열반은 탄생시기와 비슷하죠. 대강 기원전 5세기 중반(460~480 BC)이 믿을 만하게 보이는데, 그 까닭은 아쇼카시대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요즈음은 부처님이 아쇼카보다 100년 정도 빠르리라는데 합의되고 있습니다.

진월: 교수님께서 일생동안 불교를 연구하시고 가르치신 입장에서 불교에 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한국불자 수행에 감명

자이니: 나의 불교연구는 매우 고무적이었고 보람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경전들을 읽으며 심도있게 이해하면서 기뻤고, 불교 연구는 나의 경력에 의미를 주었습니다. 경전읽기는 큰 건물을 지으려는 이에게 첫번의 벽돌과 같은 시작으로 생각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월: 교수님은 지계나 참선등 어떤 수행을 하시고 계십니까?

자이니: 나는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전에 쓰여있는 대로 정념수행을 하는데에 가장 큰 가치를 느꼈습니다.

진월: 다가오는 21세기에 불교의 상용성은 어떻습니까?

자이니: 불교는 두가지 이유로 가장 인정받을만한 종교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 과학에 기초한 진화론 등에 의해 창조론적 교의에서 발생한 제도화된 종교들이 반대를 당하는 오늘날, 불교는 창조의 교의로부터 자유롭고 합리적 관점들에 유익하며 다른 성립종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연하게 설명해 주어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다른 이들의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타적 보살사상이 보태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자체로 불교의 매우 보람스러운 부분이된다고 생각되는데, 불교인들에겐 세가지 기본 수행이 있습니다. 즉 도덕적 생활 윤리실천인 지계, 정신적 생활을 추구하는 방법의 선정, 실상의 앎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 세가지의 종합으로 불교는 상당히 이바지 할 것입니다. 불교는 항상 어느 곳에서도 유혈충돌이 없었던 세계종교입니다. 불교는 결코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며 다른 이들을 개종시키려하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평화적으로 포교해 왔으며 오직 가르치기만 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평화적 교화방법이 미래에 높이 평가되고 환영될줄 믿습니다.

진월: 끝으로, 불교도 경건주간에 즈음하여 한국 불교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이니: 나는 한국에 가서 그들이 비범하게 불교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열심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회발전과 진보가 서양화로 잘못 인식되는 때에 불교도들이 단순 소박성, 자비 계발, 친목 평화 등의 불교적 가치를 소중히 잘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이니교수 약력〉

1949 인도 봄베이대학 영어 · 컬리어학사
1951 스리랑카 콜롬보의 비드요다야 프리베나 심장법사
1958 영국 런던대학 불교 문학박사
1962~66 미 애리조나 힌두대학 철리 강사
1966~67 런던대학 팔리어문 강사
1972~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 불교학 남아시아학 교수
〈아비달마다르마〉 〈사르르와〉 〈자이나교의 정화도〉 〈최전적 탄생설화〉 〈아라한의 개념〉 〈동양과 서양의 불교학〉 〈부파주의 이론에 대하여〉 등 불교와 자이나교 분야를 중심으로 60여편의 논문발표

생활수행 비중 커질듯… 번뇌·욕망 제거로 열반 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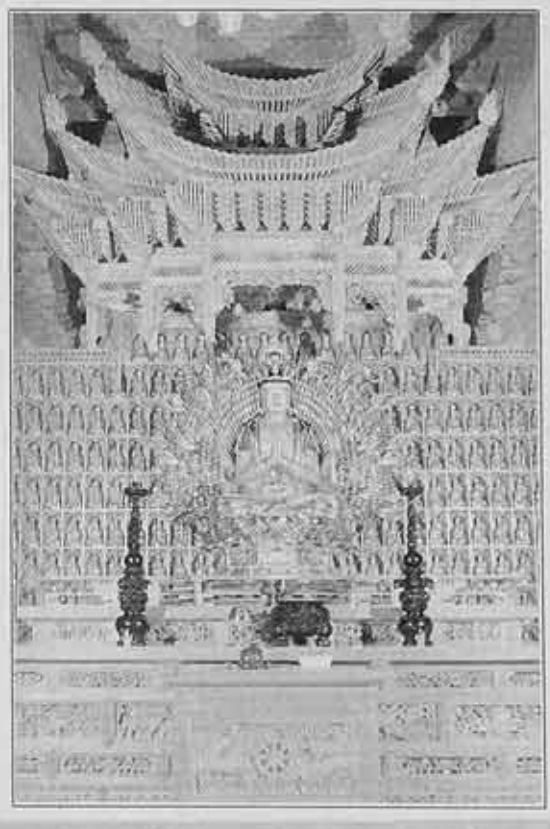
'지계·선정·지혜바라밀' '이타적 보살사상' 21세기 선도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52〉

明敎嵩禪師尊僧篇 (명교숭선사존승편) ④

行其中道則不空不有也 其絶學也 離念淸淨 純眞一如
행기중도즉불공불유야 기절학야 리염청정 순진일여

중도(바른법)를 행하는 즉 공에도 빠지지 않고 유에도 빠지지 아니하며
배움에 빼어나기로는 한생각 여의어 그대로 청정하니 본성 그대로 법다운지라.

不復有所分別也
불부유소분별야
僧乎 其爲人 至 其爲心 博 其爲德 備 승호 기위인 지 기위심 박 기위덕 비

다시금 분별 사량할 바가 있지 않다.
스님이여, 그 사람됨이 도에 지극하며 (사무치며) 그 마음됨됨이가 끝간데 없이 넓고 넓으며 그 덕됨이 갖추어있고

其爲道大 其爲賢 非世之所謂賢也
기위도대 기위현 비세지소위현야
其爲聖 非世之所謂聖也
기위성 비세지소위성야

그 도로 말하면 천지를 덮을만큼 크고
어진것으로 말하면 이른바 세상에서 어질다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며
성스럽기로 말하면 이른바 세상에서 성스럽다 말하는 그런것이 아니라

出世殊勝之賢聖也 僧也 如此 可不尊乎
출세수승지현성야 승야 여차 가불존호

출세간의 수승한 어짐과 성스러움이라. 스님이 이와같으니 가히 존귀하지 않겠는가.

釋難文 (석난문) ①

希顔首座 字 聖徒 性 剛果 通內外學 以風節 自持
희안수좌 자 성도 성 강과 통내외학 이풍절 자지

희안 수좌의 다른 이름은 성도다. 성품이 강직하고 과단성있어 경전과 다른 학문에 달통하고
기풍과 절개로써 스스로를 지키더니

遊歷罷 歸憩故廬
유역파 귀은고려
跡不入俗 常閉門宴坐
적불입속 상폐문연좌

선지식을 찾아 떠돌던 행각을 마치자 예전의 움막으로 돌아가 은거하며
세속의 자취를 끊고 항상 문을 닫아걸고 편안히 앉아서

非行誼高潔者 莫與友也
비행의고결자 막여우야
名公貴人 累以諸刹 招之 堅不答
명공귀인 루이제찰 초지 견부답

행실과 뜻이 높고 깨끗한 자가 아니면 더불어 벗하지 않았다.
세상에 이름난 공자(재상이상의 벼슬)와 귀인이 여러번 사찰을 맡기려하되 굳세게 대답하지 않았다.

時有童行 名參己 欲爲僧 侍左右
시유동행 명참기 욕위승 시좌우
顔 識其非器
안 식기비기

이때에 한 어린 행자가 있어 이름을 참기라 했는데 스님이 되려는 생각에 좌우에서 시봉하더니
희안수좌가 그 법기되지 못함을 알고

作釋難文 以却之曰
작석난문 이각지왈
知子莫若父
지자막약부
若予之參己
약여지참기

석난문을 지어 글로써 물리치며 이르기를,
자식을 아는데 아버지 같은 이 없고 아비를 아는데 자식 같은이 없나니
나의 참기와 같은 아이는

非爲僧器
비위승기
蓋出家爲僧 豈細事乎
개출가위승 기세사호
非求安逸也 非求溫飽也
비구안일야 비구온포야

스님될 그릇이 아니다.
대개 출가하여 스님되는게 어찌 간단한 일·작은 일이겠는가.
(스님되고자 함은) 안일함을 구하는 것도아니며 따뜻한 자리 배부른 음식을 구하려는것도 아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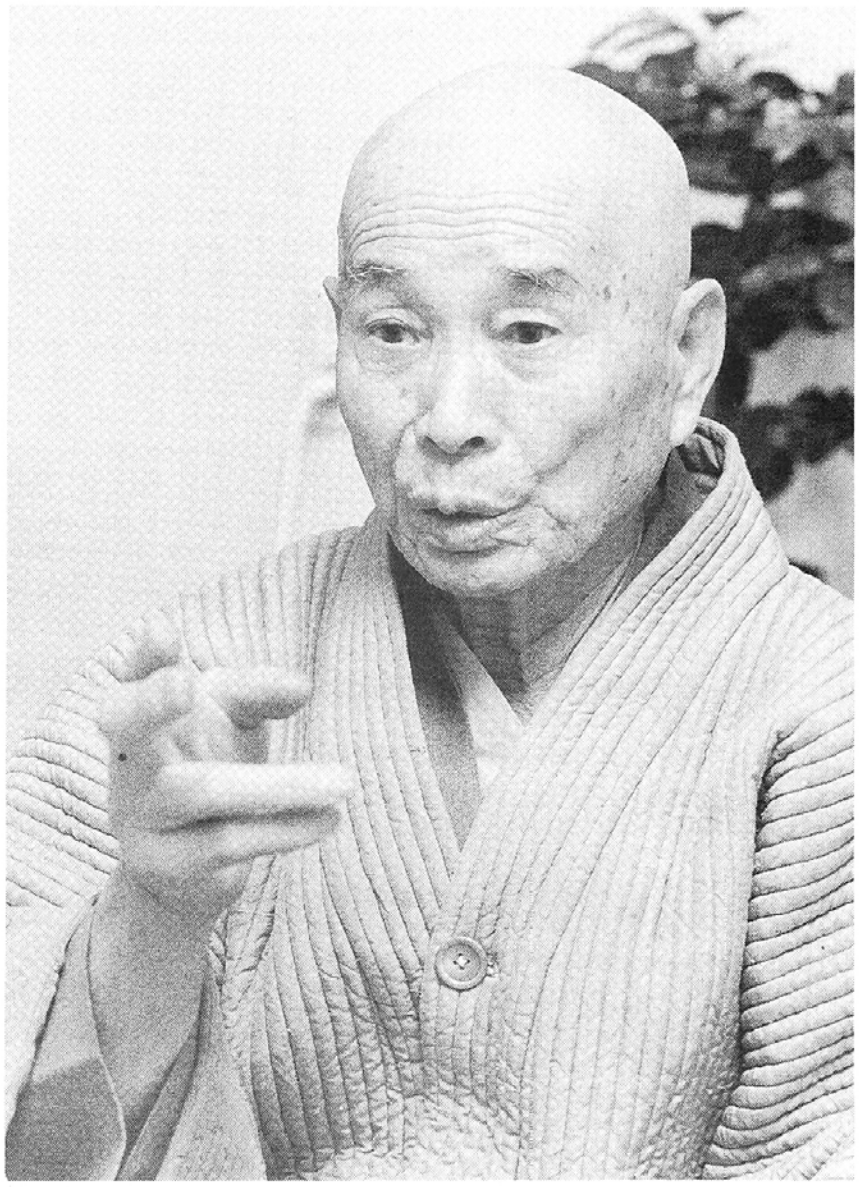
"스님됨은 안일 구하는 것도 아니며 따뜻하고 배부르고자 함도 아니다"

龍眼

출가·열반절 기념 지상법석

"자기 마음 제대로 챙기고

구암스님 〈광덕암 주지〉



약력
- 1918년 生
- 효봉스님을 은사로 출가
- 60년 구산스님 계사로 사미계수지
- 66년 자운스님계사로 비구계수지
- 92년부터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간 두문불출정진
- 해인사, 통도사, 동화사 등 선원에서 수행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과 열반에 드신 날을 기념해 경건주간을 정하고 특별히 정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수행에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야 아니겠지만 요즘처럼 번잡스러운 세상에 승가의 수행자들도 이일저일 바쁜데 재가자들이야 어디 자기 마음인들 챙기고 산답니까. 일주일이나마 경건한 마음으로 진정한 출가의 의미를 새기고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다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밝아지는 것이겠지요. 오늘 나는 출가와 열반에 대한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 미리 아셔야 할 것은 나의 얘기가 다 쓸모가 없는 것이란 겁니다. 나는 출가를 했지만 그래서 선방에서 여러해를 살아오고 있지만 아직 깨달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얘기는 현명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알아내는 것이지 나같은 사람의 말에 끄달리지 말아야 하는 것임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출가는 글자 그대로 집을 나간다는 것인데, 이 세상의 가장 큰 진리를 깨닫는 공부를 위한 수행을 목표로 집을 나가는 것을 출가라 합니다. 무작정 현실이 싫어서 무슨 불만이 있어서 반항심으로 집을 나가는 것

부처님께서는 왕자자리도 버리고 고통근원 알기위해 출가하셨습니다

은 출가라 하지 않고 가출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가는 분명한 목적 다시말하면 견성성불의 위대한 원력을 이루려는 결단의 첫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라에 따라 출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각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출가로 인해 구도의 행장이 비롯되는 것은 대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라는 좋은 신분을 버리고 출가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생노병사의 인간 고통이 어디서 왜 오는 것인지 그것을 영원히 떠날 수는 없는지를 알기위해 출가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중에 '부처님은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 위해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출가 했다'고 말하거나 생각 하는 분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에는 틀린점이 있으니까요. 왕자인 고타마 싯다르타는 수행해서 부처가되겠다는 목적(욕망같은 것) 때문에 출가 한 것이 아니라 생노병사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떠나고자 출가하여 수행 했고 마침내 깨달았으니 그 깨달은 자리에서 부처가 된 것이란 겁니다. 부처가되겠다는 생각이 앞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근원과 그것을 여의려는 생각이 앞섰다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동서남북의 문을 나가 생로병사에 허덕이는 인간의 실상을 보고 그 원인과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명쾌한 답을 해 주지 않으니까 부처님은 직접 그 의심을 풀기 위해 밤중에 성을 넘어 출가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처님께서 보이신 일생가운데서 출가가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분석해 알아보자는 의미이지 따져서 시비할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요즘은 성불 한다, 성불 해라, 성불 합시다란 말을 너무 쉽게 쓰고 있는데 그런 말을 가벼이 쓰는 것과 진실로 철저히 수행을 하며 성불의 길을 닦는 것과는 불자로서의 자세에 있어 차이가 큽니다. 불자로서 뚜렷한 목표를 갖는 것은 지당한 일이겠으나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임을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 40여세에 출가를 했는데 지금도 누가 와서 출가하겠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다만 출가의 목적이 자기를 아는데 있느니만큼 그 일에 자신이 있을때 출가하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 자신을 갖는 것이 출가나 수행에 앞서는 조건이기 때문이지요. 자기를 바로 아는 공부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얼마나 투철한 수행을 하느냐가 문제이지요. 〈초발심자경문〉에 '어떤 일이든 하지 않으려 하는 것 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이 있지요. 내가 도봉산 천축산 무문관에 6년 두문불출 정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구산스님께서 "생사 두 글자를 이마에 붙이고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라"고 격려하시더군요. 실로 수행은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까닭에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의연함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무문관 얘기가 나왔으니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출가한지 얼마안된 어느날 그러니까 동화사 금당에서 결재중일때 천축사에서 무문관을 열고 6년간 두문불출

불교성지순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특별 기획상품을 마련하였사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원합니다.

-혜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合掌-

특별기획 1 — 중국 티벳 네팔 9일
- 일 정 : 서울-상해(1)-성도(1)-라사(1)-장체-시가체(1)-라사(2)-카트만두(1)-기내(1)-서울
- 동참금 : 230만원
- 기 간 : (1차) 3월 17일-3월 25일
  (2차) 5월 12일-5월 20일
  (3차) 6월 23일-7월 1일

특별기획 2 —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 일 정 : 서울-상해(1)-계림(2)-서안(1)-낙양(2)-용문석굴-소림사-정주(1)-태원-오대산(1)-대동(1)-운강석굴-북경(2)-서울
- 동참금 : 180만원
- 기 간 : (1차) 3월 23일-4월 4일
  (2차) 4월 22일-5월 4일
  (3차) 5월 27일-6월 8일

대만 성지순례 3박4일
4월 25일 출발 모집중(확정)

특별기획 3 — 중국 불교 성지순례 9일
- 일 정 : 서울-상해-보타산(2)-낙가산-영파(1)-천태산-항주(1)-구화산(2)-소주(1)-상해(1)-서울
- 동참금 : 135만원
- 기 간 : (1차) 4월 8일-4월 16일
  (2차) 5월 25일-6월 2일
  (3차) 6월 20일-6월 28일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각 사찰, 신도회 단체 성지순례, 수시 출발·상담환영 (일정조정 가능)

인도 성지순례 9일
- 일 정 :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부다가야-라지기르-나란다-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발람푸르-기원 정사-델리-서울
- 동참금 : 150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 일 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플론나루아-시기리야-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 동참금 : 118만원

대만 성지순례 5일
- 일 정 :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 동참금 : 65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5일
- 일 정 :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보로부드르-자카르타-서울
- 동참금 : 95만원

미얀마 태국 성지순례 8일
- 일 정 : 서울-양곤-파간-만달레이-양곤-페구-양곤-방콕-서울
- 동참금 : 145만원

출가·열반절 기념 지상법석

사는 것도 출가입니다"

"매일매일 출가한다는 생각으로 출근하고 회사일하고 가사 돌보는 것이 열반의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몸의 운전수인 마음을 알아내는 공부가 수행
출가서원 한결같이 간절하게 지키면 열반만나

정진할 수행자를 정하기 위해 백일 특별정진을 한다는 안내장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그때 하안거가 다섯번이 안돼 특별정진에 끼일 수가 없었으나 어찌어찌 도움을 받아 28명의 정진자 사이에 들 수 있었지요. 그 정진이란 하루 3시간 자고 21시간을 참선하는 힘든 과정이었는데 22명이 회향을 했습니다.

그후 관응스님과 제선스님이 두문불출 6년정진에 들어갔고 나는 동구불출 정진에 들어가 3년을 거친 후 두문불출 6년 정진에 들어 갔습니다. 그 긴 시간을 긴 줄도 모르고 정진 했는데 거기서 내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이라면 수행자는 대중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후로도 해인사 퉁도사등 대중처소에서만 수행을 했지요.

출가에 대한 얘기를 이어 보도록 합시다. 출가는 도를 이루기 위해 수행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것인데 그 성스러움은 간단없는 수행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출가의 본래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출가할 때의 크고 장한 원력을 한결같이 지켜가는 것입니다. 출가할 때의 마음이 사라진 곳에는 의당 삿되고 번잡한 욕심이 들어차기 마련이니까요. '도가 높을 수록 마가 성한다'는 경계의 말씀이 있거니와 삿된것이 들이칠 수 없도록 항상 마음을 다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출가할 때의 그 굳은 서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미 얘기했듯 출가의 목적은 견성성불입니다. 견성성불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보고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는 것 여기에 성불의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비행기나 기차 배등이 있어 우리는 편리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비행기로 한시간이 채 안걸리고 기차로도 4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나 기차나 배는 저 혼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것들을 움직입니까. 사람이 움직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운전사, 조종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이 움직입니까. 다리나 팔 입 눈 손가락 이러한 것들은 저혼자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무엇이 움직이라고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내 몸의 운전수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내는 일이 곧 수행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겁니다.

나는 출가하여 무문관에 들어가기전에 성철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늦깍이라 나이는 들었어도 수행은 아직 첫길을 가는 형편이었으니 6시간동안 3천배를 하고나서 성철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적게 먹고 적게 자고 돌아다니지 말고 책 보지 마라'고 일러 주시더군요. 나는 아직까지 그 네가지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생각할 수록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식탐과 수면욕을 억제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끊는 공부이고 돌아 다니지 않는 것은 이런저런 경계를 만들지 않음으로 번뇌와 망상을 차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을 보지 말라는 것도 망상을 지어내는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인데 마음 닦는 공부에는 아는 것이 많은 것도 큰 병에 속하거든요. 많이 알면 아는만큼 어려워 지는 것이 그 공부입니다. 아무튼 늦은 출가였으나 처음 받은 그 네가지 가르침을 평생 버리지 않고 지켜오다 보니 그런 실천이 수행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출가의 길에서 세운 굳은 서원으로 깨달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정진이 없다면 출가의 의미도 햇살 앞의 이슬처럼 허무해지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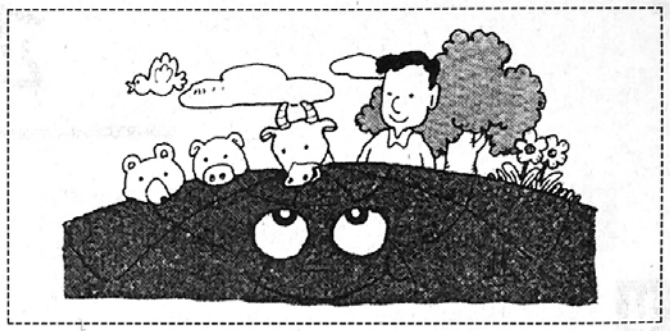
열반이란 내 마음 자리를 환하게 밝혀 알아서 고요하고 고요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생사윤회의 중생고를 벗어 던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열반입니다. 또 육신을 벗고 법신으로 진리의 세계에 들어 간다는 의미도 있으니 부처님께서 80세에 육신을 버리신 일을 열반에 드셨다고 얘기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 후세에 진리의 법을 펴신 여러 스님네들의 죽음도 이런 까닭에서 열반이라고 얘기 합니다. 다시말해 열반은 법신이 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진리의 법 그 자체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니 출가의 완성이 곧 열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가를 열반으로 완성 시키는 것, 이것 역시 수행의 길에서 이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거듭 출가할 때의 굳은 원력을 잃지 말라고 얘기 한 까닭을 이제 확실히 이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건주간이라고 해서 짧은 기간을 정해두고 임시로 출가를 해서 수행하는 불자님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런 분들도 출가의 원력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열반의 법신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행은 나이와 시간에 따라 이뤄지고 안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열반이란 출가의 완성입니다 깨달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정진이 없다면 출가는 햇살앞 이슬처럼 허무해 집니다"

번뇌망상에 끄달리지않고 일심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숙명통과 천이통, 천안통, 신족통, 타심통을 얻는다고 합니다. 숙명통(宿命通)이란 과거세의 모든걸 알게되는 것이고 천이통(天耳通)은 세상에서 인간의 귀로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것이며 천안통(天眼通)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신족통(神足通)은 여의통(如意通)이라고도 하는데 걸림이 없이 다닐수 있는 것을 타심통(他心通)은 남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다섯가지의 신통을 얻고나면 마지막으로 누진통(漏盡通)을 얻게 되는데 누진통은 번뇌를 끊고 자유자재의 법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기란 쉽지가 않겠지요. 그러나 어렵다고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어렵다는 생각에 묶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한가지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안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무문관에서 수행한 얘기를 했지만 그 9년이란 시간을 정진하며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회향을 못했을 것입니다. '정신일도하사불성'이란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정신을 흐트리지 않고 철저히 가다듬으면 금강석도 꿰뚫는다고 하였습니다. 6신통을 얻어 법신을 이루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로 모아진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어렵고 쉽고의 문제는 따질 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얘기를 듣는 분이 재가불자라면 출가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매일매일 출가하란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출가하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회사일을 하라는 겁니다. 가사일을 하는 주부라면 매일매일 출가하는 마음으로 눈을 뜨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집안일을 하고 학생은 출가하는 마음으로 학교로 향하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이마에 '생사' 두 글자를 붙이고 정진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고 죽는 고통을 벗어 대자유의 법신을 이루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오늘 출가하여 내일 열반에 드려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늘 출가하고 내일 또 출가하여 열반의 문으로 다가가는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면 출가하는 이 자리가 열반의 기쁜 자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63

양 형 진

생명의 세계관

생명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개개인의 성품이나, 문화, 역사, 사회 환경, 종교 등에 따라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에리히 프롬은 그의 책에서 테니슨과 바쇼의 시를 비교한다. 테니슨은 "갈라진 벼랑에 핀 한 송이 꽃/ 나는 너를 틈 사이에서 뽑아 따낸다/ 나는 너를 이처럼 뿌리채 내 손에 들고 있다/ 작은 꽃 한 송이/ 그러나 내가 너를 뿌리와 너의 모든 것을/ 그 모두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신과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련만"이라고 쓴다. 환원주의적이며 너와 나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이 시는 생명을 해체하여 진리를 얻으려는 자세를 보여 준다. 이러한 자세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서구의 자연과학이 이에 근거하여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게 된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유기체적 전체로서의 하나의 세계는 결코 이렇게 부분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다.

한송이 국화에도 35억년 전역사 담겨
불교는 인간·자연 구별없는 생명 철학

한편 바쇼는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 울타리 옆에!"라고 쓰고 있다. 그 뿐이다. 그저 그렇게 거기 한 송이의 꽃, 하나의 우주가 열려 있음을 그는 보고 있음이다. 여여함의 미라고나 할까.

무기물에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는 유기물과 단백질, 원시적인 자기 복제 체제를 거쳐 최초 생명으로 연결되었다. 여기서 생명 진화의 역사가 시작되어 결국에는 자기 성찰이 가능한 그래서 깨달음의 가능성이 열린 인간이라는 생명종까지 지상에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인간 모두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일체동근의 다른 모든 생명과 중중무진하게 연관되어 있다. 가이아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 보았듯이, 적어도 지구 전체는 하나의 생명이다. 테니슨의 시에서와 같이 나와 너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처럼 단절된 실체가 아니라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를 장회익 교수는 온생명이라고 부르면서,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는 철학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다 같이 존중하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바로 나 자신이 법계연기의 중심이듯이, 다른 모든 것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그 모두는 다 같이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이 존중의 철학이 퇴색한 근세의 역사는 이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난제를 던져 주기에 이르렀다. 이에 지관스님은 "환경운동이라는 것도 자연과괴가 인간에게 위해되니까 아우성이지만 환경이란 말도 인간 중심의 서구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말"이라고 지적하면서 "동체대비의 자각으로 유정과 무정을 차별없이 사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탐욕에서 비롯되었음에, 프롬은 더 많이 소유하여서가 아니라 충실히 존재함으로써, 불교적으로 말하면 여여하게 존재함으로써 기쁨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문제가 탐욕에서 시작되었다면 이의 해결은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생명을 존중하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시대의 분명에 불교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성만으로 작동되었던 우리의 세계를 이성의 세계로 그리고 더 나아가 여여함의 세계로 고양시키는 작업은 이제 우리들 모두의 몫이다.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며 피운 한 송이의 국화꽃, 거기에는 35억년의 전역사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잎파리의 꽃에서 장엄함을 보아야 한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김용정 교수는 한 송이의 꽃, 한 포기의 풀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한 포기의 풀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은 어디에서도 가능하지 않다. 관세음보살이 어찌 법당 안에만 계실 것인가?

"하늘에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 그늘에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박남수의 시 〈새〉를 보며 부족한 사람의 부족한 글을 여기서 마친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그 마음을 바쳐라/ 신국판 267쪽/ 값7,500원

김재웅 법사의 세 번째 책 출간!

그 마음을 바쳐라

힘껏 남을 먹여 살리는 마음을 내면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정신이 맑아지면 우주와 통하게 되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본연의 우주물건이
그냥 우주화된다. 원래 동서남북이 없는 것인데 그게 있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면
그 주장하는 놈이 주인이 되고 우주 지혜는 그만 간 곳이 없어질 것이다.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세상사를
설명하고 무엇이라 결정을 내리면서 지혜를 가로막는 일에 열심인 것이 인간들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네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아닌가. <백 선생님 법문에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법사의 첫 번째 책 신국판 201쪽/ 값3,8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의 행로를 한걸음 한걸음 디디는
모든 길 가는 이들의 고통과 그 해탈을 위하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김재웅 법사의 두 번째 책 신국판 273쪽/ 값4,000원

도서출판 용화/ 경북 영일군 흥해읍 성곡 2동 1391/ 전화 (0562)61-2231,/ 서울 연락처 (02)742-0177
판매보급처/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720-9372, 9373/ 팩스 (02)723-0516
금강경 독송회/ 서울 혜화법당 (02)742-0172/ 포항 우현동 법당 (0562)47-0323/ 포항 금강정사 (0562)61-2231/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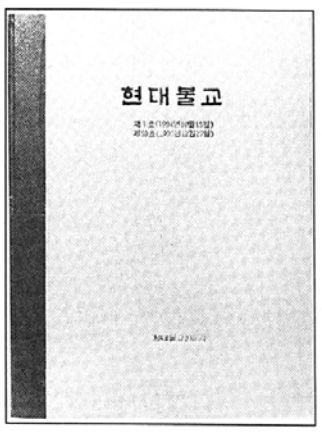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옥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호 1집** :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 15) ▶ 제59호(95. 12. 27)
■ **가 격** : 50,000 원 (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02)737-8881 팩스:(02)737-0697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고은 불교대하소설

암살 사건

천막 몇개의 숙소는 때마침 바람 한점도 없는 상태의 죽은듯한 사막의 밤을 온통 괴화롭게 만들었다.

먼 거리를 지나온 사람들의 피로가 풀리는 중이었고 천막밖의 낙타들도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무념무상의 경지로 눈을 반쯤 감고 잠들어 있었다.

타림하의 물은 얕다. 그 물속에 고기 한 마리 있을리 없었다. 귀머거리가 아닌 밤은 귀를 가지고도 어떤 물소리도 들을 수 없게 그 물은 거의 멈춰 있었다.



► 70 ◄



아내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형제의 부인을 아내로 삼는다…"

그런데 이런 흉노족의 자유분방한 풍속 가운데서도 단연 이채로운 것이 숨겨져 있다. 그것은 그들 중의 뛰어난 소년이 영감에 넘쳐 밤하늘의 별빛을 보고 내일의 일을 예언하는 일이다.

"아버지! 내일은 싸우지 마십시요. 투루판 쪽에서 한족(漢族) 군대들이 내일 모래바람 속으로 달려오니까요."

이런 소년의 아버지인 한 흉노군 간부에 해당하는 전쟁영웅은 "하하 내 자식에게 활과 칼 대신 점장이라! 이것이야말로 내 조상에 대해서 변복없는 길"이라고 개탄하면서도 은근히 아들의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다음날을 주목하는 것이었다.

그의 아들이 말한대로 한족은 그들이 자랑했던 서역도호부를 재탈환하기 위한 기습작전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흉노족은 한족의 기습에 앞서 그 기습병력을 후방과 단절시켜 모조리 포로로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흉노족의 간부는 그의 아들의 점성술(占星術) 때문에 최고 왼수인 한(汗)의 특명으로 그 아들보다 계급이 낮게 될만큼 아들이 뜻밖에도 전쟁영웅으로 승진되었다.

흉노족의 별에 대한 오묘한 예언은 이런 전쟁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었다. 누군가 죽는 일이나 누군가가 다른 곳으로 몰래 떠나는 일까지도 미리 알 수 있을만큼 별과 인간과의 교감에 의한 미래파악이 가능하였다.

타림하 기슭의 한 천막 안에서 잠들었던 소년이 문득 잠이 깨어나 천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저 별이 이상하다!"

라고 소년은 아직도 눈가에 남은 잠을 떨어버린채 혼자 놀라는 것이었다. 당직 원들에게 외쳤다. 외치는 동안 입안에 모래가 스며들었다.

"퉤! 퉤!"

그는 입안의 모래를 자꾸 내뱉아야 하였다.

"아 하늘에는 가마귀 한 놈 없고 땅에는 들쥐 한 놈 없다."

이런 모래바람 속의 행렬에는 오직 늙은 낙타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낙타가 입과 코를 모래속에 박고 있던 아침에 사람들은 오늘의 모래바람을 짐작하였다.

낙타들의 울음소리가 한층 더 그 행렬을 처절하게 만들었다.

끝내 그 강도집단의 행렬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 일대에서 가장 무서운 북동쪽에서 불어닥치는 카라부랑(黑砂風)과 사리부랑(黃砂風)이 서로 으르렁대며 지지 않으려고 휘몰아 치고 있었다.

"도대체 이런 죽음의 사막에 웬놈의 나라들이 그렇게나 많이 세워져 있었던가."

"한나라 서역도호부에 의하면 이 일대의 오아시스국가가 55개국이나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던 것이 사실이지… 그 뒤 한족이 말하는 36국도 36이라는 수(數)가 실수(實數)가 아니라 무수(無數)였단 말이야."

행렬이 서로 낙타의 머리를 안으로 모여 한 원(圓)을 이루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동안 모랫바람의 기세가 좀 누그러지기 시작하였다.

한 검정수염의 위굴족 사내가 욕을 퍼부어 댔다.

"미친 년! 네년의 가래가 확 찢어져라."

그런데 다른 사내가 그 사내의 등짝을 나타 채찍으로 후려쳤다.

"이 자식아, 성스러운 바람을 미친년에 견주는 네 놈은 어떤 마귀 구더기에서 온 놈이냐?"

사실 그 강도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막의 여러군데에서 모여든 것이다. 그들은 사막 밖의 초원에서 망명해온 자도 있거나 천나라에서 도망쳐온 자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 광막한 사막 일대에서 일종의 신앙처럼 생겨난 모래바람에 대한 외경심을 통 모르고 함부로 그런 모래바람에 욕설을 퍼부어대는 일이 있는 것이다.

천산남로 아래의 타림하(河)는 로브사막을 지나면 사막에 그 꼬리를 묻어버린다.

강도집단의 두령은 본디 옛 고창국(高昌國) 귀족의 후예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불행과 함께 자라난 무장(武將)인데 난세를 거치는 동안 그는 천나라 도위부에도 속해 있다가 반천노선의 세력에 속해 있기도 하다가 이제는 국적 따위가 필요없는 불교에 정신의 뿌리를 둔 유랑강도집단을 이끌게 된 것이다.

그들은 아무도 5계(五戒) 중의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계율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들의 강도행위는 이 사막에서 사는 극빈자를 구호하기 위한 의적(義賊)의 그것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일행은 가장 잘 사막에 익숙한 행진으로 며칠동안 누란쪽으로 갔다.

"나는 고창국 영웅의 자손이란 말이야!" 두령은 그들의 집단을 하나로 만들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생각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나 지금 누란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두령의 사사로운 집념 때문이었다. 그 집념은 누란의 유적은 그 일대가 건조한 폐허로 되기 전은 은성했던 시절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이었다.

두령은 왕이 될 생각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이따금 야광배(夜光盃)에 술을 가득 부어 들어올리면서 "나는 고창국 영웅의 자손이란 말이야" 라고 으시대는 것도 그런 생각의 한 자락이 취기를 통해 슬며시 나온 것인지 모른다.

청동으로 된 불구(佛具), 무기, 옛 화폐, 장신구 그밖의 귀중한 보물 따위를 발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상(隊商) 따위나 터는 강도질보다 훨씬 값진 노릇이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그는 이런 커다란 수확

가슴 한복판에 단검을 꽂았다… 두령은 어둠속에서 쓰러졌다

오직 이 밤을 지켜주는 것은 하늘 가득한 별빛들이었다. 상현달이 이 일대의 터무니없는 듯한 허공을 더이상 비추지 못하고 저버린 뒤로부터 별빛들이야말로 우주의 모든 의지들이 총동원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사마천의 사기 〈흉노열전(匈奴列傳)〉은 일찌기 이 사막까지 아울러 그들의 세상으로 만들었던 흉노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어린 아이들도 양을 잘 타며, 활을 쏘아 새와 쥐를 잡는다. 좀더 자나서는 토끼와 여우를 잡아 먹는다. 언제나 강력한 무력으로 침략 공격을 강행하여 전황이 유리하면 전진하고 불리하면 후퇴하는데, 도망가는 것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 젊은이는 기름지고 맛좋은 것을 먹고 노인들은 그들이 남긴 것을 먹는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생모가 아닌 경우 그 미망인을 보초병이 "무슨 일이냐?"라고 소년에게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는 오줌을 싸고난 뒤의 진저리로 당황한 사실을 숨긴채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천막 안은 잠든 사람들의 숨소리 이외에도 이따금 들리는 잠꼬대나 코고는 소리와 함께 살아있는 목숨이 휴식하는 신성함으로서 마치 그 안에만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 평화로 가득하였다.

날마다 상대방과의 대결이나 습격을 일삼는 무리에게는 그들의 잠만이 오직 그들도 얼마든지 세상의 선의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남방 한족의 농촌에서 구해온 무소의 뿔로 만든 피리의 묵직한 소리로 기상명령이 떨어졌다.

그트록 거칠기 짝이 없는 강도집단일지라도 그 피리소리에 의해서 아주 잘 훈련된 병사들처럼 재빠른 동작으로 일어나 침구 따위를 정리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세수따위를 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자연정화에 의존하고 있었다.

불이는 그의 담당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오늘 중에 목적지에 도착합니까?"

"천만에… 오늘 목적지가 알려질 예정이지 그곳에 도착한다던가 하는 일은 두령에게 달려있는 것이오… 그런 것이나 궁금해 하는 것이 당신들의 공부입니까?"

사뭇 질책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일행은 딱딱한 밀가루 전병을 그 두꺼운 것을 뜯어 먹는 것으로 아침을 때웠다.

그런 다음 누란과 돈황 사이의 절반 대중에 해당하는 하서회랑(河西回廊) 동쪽으로 바짝 나아가는 행진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제 타림분지의 끝없는 사막을 뒤로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모래바람은 그 세찬 바람속의 작은 총알과도 같은 모래들이 사람의 뼘에 박히기도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그 모래는 모래뿐이 아니라 황토가 섞여 있어 황사라고 말해야 옳았다.

그래서 이 일대에는 진흙을 이겨 세운 도시와 벽돌을 구워서 만든 도시의 중앙도로가 여기저기 유적으로 남아있는지 모른다. 그런 도시의 중심부에서 항상 지배자의 창고만 발견하면 하루아침에 거부가 될만한 보물들이 눈앞에서 굶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버글거릴 것이다.

"낙타가 쓰러질 지경이다. 바짝 정신 차려라. 이게 어디 바람이란 말이냐. 악귀(惡鬼)다. 악귀! 옛날 법현(法顯)화상이 남긴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

라고 불이의 담당이 그의 뒤를 잇는 대

그림 · 조향숙

불교가 어려워서 쩔쩔매는 분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고, 친절한 무비스님의 불교 안내서!

신간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책장이 술술 넘어갑니다. 글씨도 보기 좋습니다.
이 책은 무비스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듯한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딱딱한 교리도 놀랄만치 쉽게 설명합니다.

근래 불교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불교책이 모두 어려워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멀뚱댄다고 합니다.
우리시대 불교의 석학이신 무비(無比)스님이 펴낸 〈불교공부〉는
불교방송에서 강의한 내용으로 우리같은 초심자나 신도들에게는 물론
불교에 심취해 있는 분들에게도 더없이 친절하고 반가운 안내자입니다.



신국판 400쪽/값 8,000원

또하나의 역작 무비(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12권/값 160,000원

민족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732-2403~4 팩스 739-7565

*이 책은 불교방송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법보시 주문은 할인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서 3

능가스님의 알기쉬운

법화경강설

釋能嘉편저 / 정가 4,000원

능가(能嘉)스님이
대승경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법화경을
현대인이 알기 쉽게 풀어쓴 역저!
노스님의 지혜와 애정이 베어있는
쉬운 법화경.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 안내
매월(양력)1일 오전11시~12시까지
법어사 내원암에서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가 열립니다.
연락처 (051)508-5165

佛書專門出版
大興企劃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B/D 101호
전화 (02)738-6270, 735-7202
FAX (02)733-1016

현대불교신서

1. 문수사리소설 대하반야바라밀경 李乙烈역·釋能嘉감수
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직접 설한 경으로 일행삼매(一行三昧)를 통한 진리에의 도달을 강조한 지혜의 보고 값/3,000원

2. 대장부론 李乙烈역·釋能嘉감수
물질에 찌든 현대인에게 보시를 통한 자아의 발견과 보다 나은 인간세상 건설을 위한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 값/3,000원

3. 법화경 강설 釋能嘉편저

4. 육묘법문 李乙烈역·釋能嘉감수
옛 승려가 빨리 해탈을 얻으려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행적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을 서술한 지혜의 샘 값/3,000원

5. 금강경 육조해 근 간

6. 반 야 경 근 간

* 대흥기획의 현대불교 신서는 알찬 내용을 담아 계속 간행됩니다.



◇백화도량회원들이 언어청각장애자들을 위해 수화로 천불가를 부르고 있다.

일념장학회 '제1회 수화찬불가 발표회' 현장

"딸아! 수화를 통해서라도 부녀의 정 나누고 싶구나"

"미연아! 내 입으로 너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이 아버지도 왜 말못하는 사람이 됐는지 모른단다. 너를 낳았을 때 장애인만 되지 말라고 부처님께 열심히 매달렸지. 네가 정상인으로 자라줘서 아버지는 너무나 기쁘고 더이상 바랄 것이 없어…."

지난 16일 재단법인 일념장학회가 주최한 제1회 수화찬불가 발표회에서 청각·언어장애인 불자모임인 '백화도량' 회원 지용주씨가 딸 미연이에게 보내는 편지글이다. 3백여 관객이 운집한 장내는 갑자기 숙연해졌으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지용주씨의 편지는 계속됐다.

"싫어하는 너에게 수화를 빨리 배우라고 독촉한 것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었지. 사랑한다, 미연아!"

이날 수화찬불가 발표회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언어인 수화를 널리 보급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이 불법(佛法)에 귀의함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백화도량 회원들의 수화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합창단의 은은한 선율이 조화를 이룬 '찬양합니다' '청법가'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관세음이 노래' 등 수화로 부르는 찬불가가 장내에 가득 울려퍼지자 반쯤은 호기심어린 눈으로 행사를 지켜보았던 관객들의 마음은 어느새 뜨거워지고 있었다.

또 자신들의 수화찬불가가 정상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궁금해 하던 백화도량 회원들의 불안은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않는 관객들의 호응으로 말끔히 씻어진 듯 했으며 '소양강 처녀'를 부를 즈음해서는 모든 관객들이 박수로 박자를 맞추는 즐거운 분위기가 연출돼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관(전 범어사 주지), 심산(통도사 부산포교원장)스님 등을 비롯한 3백여 사부대중들이 백화도량 사람들과 함께 한 어설픈 수화는 장애인과 정상인을 구별케하는 모든 분별심을 없애 버리려는 하나됨의 몸짓으로 남아 긴 여운을 남겼다. 공연을 끝까지 지켜본 한 관객은 수화찬불가가 이렇게 아름다울줄 몰랐다며 "이번 공연이 장애인들이 가지는 몸의 불편함을 압도하는 정상인들의 편견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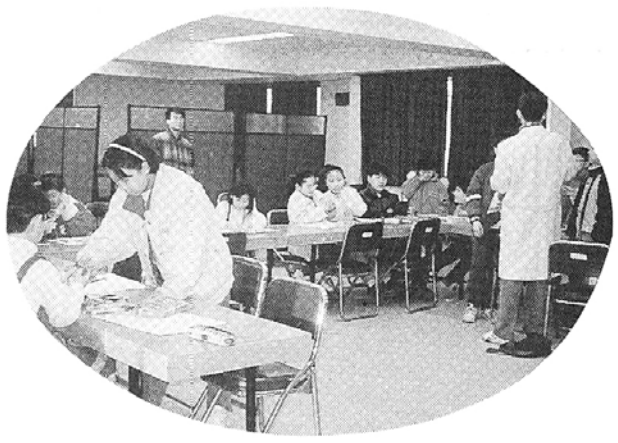
'청법가' 등 울려퍼지자 관객들 '한마음'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수화통역을 담당한 강주수(백화도량 수화지도)씨는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77.7%의 사람들이 장애인과 같이 일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 장애인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청각장애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을 욕하는 소리라도 좋으니 단 3분만이라도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라며 불자들이 수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부산=박병근 기자

장애·정상 분별심 없애는 인간사랑 '화합의 자리'

교계 사회복지관 '가족문화강좌' 인기



◇아이들에게 있어 엄마와 학습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엄마가 선생님이고, 친구이다.

"엄마와 함께 대화 기쁨 두배"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는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학교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다.

최근들어 이렇게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교계 문화센터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도심사찰이나 복지관 등 불교계 문화센터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나 방학을 이용한 강좌로 수영, 종이접기, 찰흙놀이, 서예교실, 공작놀이, 동화그림그리기, 컬러믹스, 창의력개발과 과학놀이 교실 등을 열고 있다.

수영·서예·컬러믹스·과학교실등 다양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저학년과 고학년반을 나눠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어머니와 함께하는 과학교실을 열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아이들의 창의력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개설한 과학교실은 현재 30여명의 수강생들이 각종 실험공부에 열중하고 있으며 한달에 한번 엄마와 함께 참석한다. 이처럼 불교계문화센터는 가족과 함께하는 강좌를 통해 신심증장은 물론 가정의 화목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강심보살(48, 구로 3동)은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실험실습을 하며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 강좌를 신청했다"며 "무엇보다 공동관심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모자지간의 대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적절한 강좌"라고 생각한다며 기뻐했다.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도 엄마와 함께하는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수영교실은 현재 정신지체장애아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생활패턴이 선진국화하면서 문화생활도 가족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변화에 맞춰 앞으로 엄마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덕유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취학전 아동과 엄마가 함께하는 종이접기교실 등을 비롯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아파트촌이나 주택가에 설립된 포교원이나 문화센터에서 개설하고 있는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불교계의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만 화

法句經 법구경

* 올바름의 장 *
진실과 진리와
불살생과 절제와
자제로써...



이 향 원



사랑도, 혁명도, 역사도 다 업(業)이어라

죄없고 빚없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업을 안고 산다.

"이 땅의 승려로서 80년 5월의 항쟁은 나의 풀리지 않는 화두였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업장, 그 인과에 의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전국 서점가 베스트셀러 에고

혜범스님 장편소설



산중 암자로 떠나 버린 스님이
툭 던지고 간 소설!
그렇다. 은둔이 아닌 적극적인 실천의 삶.
불교문학의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리현석(문학평론가)-

혜범스님의 소설 업보의 주인공 붇들네.
꺽이고 짓밟힌 이 땅의 들풀들을 위해
우리는 계속 변화할 것이다.
-이종학(변호사)-

◆지성만으로 채울 수 없는 젊은 영혼들을 위한 소설

소설 업보

까닭모를 허전함에 가슴시린 날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뿐인데
삶은 왜 자꾸 처열해지고,
세상은 왜 나를 두고 앞으로만 달아나는지 ·····
벌거숭이로 태어나 수의 한 벌 얻어 입고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사랑도 꿈도 역사도 결국 업으로 받는 과보인 것을
지친 우리의 영혼은 어디쯤 이르러야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

소설 업보는 5.18광주항쟁을 배경으로 신내림을 받고
무녀가 된 기구한 한 여인과 과계승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불도의 길을 걷게 되는 아들의 질박한 인간살이를 통해
뿌린 대로 거둔다는 業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숨가쁘게 넘어가는 책갈피마다에서 묻어 나오는
슬픔과 아픔은 우리의 삶 자체가 고행의 길인 동시에
수행의 길임을 깨닫게 한다.

반야심경의 작가 혜범스님이 눈물로, 피로 씨내려간
살아 있는 혼의 소설 업보.
업보는 지금을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
바로 業을 그리고 있다.

소설 업보와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전국 서점 절찬 판매중
전2권/각권 값 6,000원/신국판

삐아폰 우리 현대사를 業으로 조명한 혜범스님의 질박한 인간살이의 화두

밀알 TEL529O14O~5 · FAX5792312

「사람의 길」은 진실로 사람이 가야할 길을 일러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신바람 나게 살아라! 내숭 뚝, 체면치레 뚝!

사람의 길

이 향 봉 스 님 장 편 구 도 소 설



사람은 누구나 착하다.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열려 있다. 진리 또한 열려 있다.
이 세상 그누구도 나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대도 말고, 탓도 말며
넉넉하고 여유있게 당당하게 사는 거다.
인간은 결국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 · · · ·
한번뿐인 인생, 생명은 오직 하나.
연습용으로 소모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인도성지의 길에서 사람의 길을 찾아 향봉 스님이 던지는 인생의 화두!

전국 서점 절찬 판매중
값7,000원/345면/신국판 양장본

밀알 TEL529O14O~5 · FAX5792312

출·판·소·식

석굴암 본존불 보는 4가지 견해

최성은교수 '다보' 17호에 발표

"석굴암은 치밀한 계획하에 축조된 석굴이며, 신라불교의 핵심이 되는 요체와 대승불교의 보편성이 함께 표현되었다."

덕성여대 최성은교수(한국미술사)는 계간 〈다보〉 제17호에 발표한 '석굴암 본존불상을 보는 4가지 견해'란 논문에서 △현존 유물자료와 석굴이 향하는 방향을 근거로 제기된 아미타불설 △증창상량문 기록과 〈법화경〉 〈관불삼매해경〉을 바탕으로 한 석가불설 △화엄사상이 조성의 배경이 되었다고 보는 비로자나불설 △부다가야 대각사 성도상과의 관련성 등 4가지로 정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이번 호 〈다보〉에는 정경희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의 시론 '깨끗한 정치를 위한 불자들의 몫-청정사회'와 호적(胡適)과 스즈끼 다이세쯔의 중국 선종사 계보연구, 1963년 동아일보 지상을 통해 불교계 정화문제에 대해 설전을 벌인 청담스님과 조지훈 시인의 '불교 현실관'을 게재한 지상논쟁이 실려 눈길을 끈다. 이밖에 '불교 개종운동의 아버지 암베드카'(김무생)와 '발해불교 문화유적'(방학봉) 등의 논문이 게재돼 있다.

혜주스님 '어린이 다도' 등 펴내

포항 옥천사 주지 혜주스님이 지난 80년 연화유치원을 개원한후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어린이 예절교육을 위한 〈어린이 다도〉와 불교교육 지침서 〈어린이 불교학습 교재〉를 발간했다.

해인사 율원스님들이 감수한 〈어린이 불교학습 교재〉는 불교 유래편과 전설편, 예절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림을 곁들여 유치원생 학습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포항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어린이 다도〉는 다도와 관련한 모든 예절을 쉽게 설명했다. (0562)72-6700

민족사 '미륵경전' 등 3권 펴내

참신한 해설과 상세한 역주를 완비한 불교경전 총서를 간행하고 있는 민족사(사장 윤창화)가 〈원각경·승만경〉 〈백유경〉 〈미륵경전〉을 동시에 펴냈다. 이로써 총 22권의 경전이 나왔다.

〈원각경〉은 부처님께서 문수 보현 보안 금강장 미륵 등 12보살과의 문답을 통해 대원각(大圓覺)의 묘리와 그 수행을 설한 경전이며, 〈백유경〉은 백가지의 교훈적인 비유를 모은 경전이다. 〈미륵경전〉은 미륵상생(上生)신앙과 미륵하생(下生)신앙을 담은 경전이다.

수월스님 일대기 '달을 듣는 강물' 저자 **김진태** 검사

"자취없이 살다간 고승 발자취 삼독빠진 우리네 삶 청량제"



간도땅에 주장자 세운 스님 일생그려

인세 전액 '연변 사찰건립' 비용으로

"가진 것은 오직 산과 물과 바람 밖에 없었고, 그림자 없이 살다가 자취도 없이 열반한 스님이 사바세계에 밝힌 등불을 3독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희미하게 나마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수서사건과 상무대 비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등의 담당검사로 유명한 대검 중수부 김진태검사(44)가 근대 고승 수월스님(1855~1928)의 일대기를 고증을 통해 복원한 〈달을 듣는 강물〉(해냄 刊)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그간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월스님은 근대 선불교를 중흥시킨 경허스님의 제자로 만공·혜월스님과 더불어 '경허의 세 달'로 일컬어지던 고승이다. 그러나 그의 수행실천 기록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김검사는 이런 수월스님의 자취를 찾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구내 도문시와 지리산 오대산 충남 홍성군 일대 등을 직접 답사, 마침내 그 일대기를 완성했다.

김검사는 20여년전 지리산 자락에서 공부할 무렵 수월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10여년전부터 일대기를 쓰려고 준비해 왔다. 그러나 스님의 삶의 자취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엄두를 못내다가 수월스님의 문손인 정암스님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사'등의 도움을 받아 94년부터 본격적인 집필을 시작했다.

어려운 작업끝에 유려하고 서정적인 문체의 따뜻한 책을 완성한 김검사는 "수월스님은 자비와 지혜를 삶과 한 덩어리로 이루어 낸 성자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하는 수행자, 수행하는 일꾼으로 살다 가신 스님의 감동어린 삶은 내게 사심(私心)없이 살아갈 것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1910년대에 간도 지방으로 건너가 화엄사를 창건하고 그곳에서 입적한 스님은 일제시대에 국경을 넘어오는 조선인들에게 주먹밥과 짚신을 만들어 주는 것을 일과로 삼으면서 중생을 부양했고, 다비식 때는 일주일 동안 불기둥이 만주 벌판에 솟아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수월스님은 한마디 설법이나 글을 남기지 않아 불교계에서도 전설적인 인물로 여겨져 왔다.

지난 93년 성철스님이 입적했을 때 휴가를 내고 해인사에 내려가 다비식을 지켜보았을 만큼 독실한 불자인 김검사는 수월스님이 보살행을 실천한 만주땅에 절을 세우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책의 인세 수입 전액은 화엄사가 있던 중국연변 도문시 일광산에 절을 세우는 비용으로 쓸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명사추천 불서100선

법정스님 '무소유'

십 사오년 전의 일이다. 법정스님이 쓴 〈무소유(無所有)〉란 수상집을 읽은 뒤였다. 너무도 주옥같은 글귀에 매료되어 스님을 꼭 뵙고 싶은 욕심이 가슴을 달구고 있는 때였다.

단비가 와서 방에서 키운 난분을 밖에 두고 시중에 나섰다가 볕살이 너무 따가와 급히 절로 가게 된 이야기며, 그 후에 난분을 나누어 주고 집착에서 벗어난 깨우침의 말씀이 마음에 들었다. 잔잔한 흐름이 있는가 하면 호소가 있고 봄날 다투어 일어서는 어린 싹의 웃음이 있고, 장삼 자락이 넓어 그 흡인력에 놀라기도 하였다. 자비를 베푸는 힘이 문자속에 스며 있어서 글의 베품이 한량없음을 되새기면서 법정스님을 뵙기 위해 불일암을 찾기로 하고 나선 길이었다. 고속버스로 순천에 도착, 차를 바꾸어 타고 송광사 입구에 하차했다. 점심은 음식점에서 해결하고 산을 오르기로 했다.

부산에 계신 원광스님과 자주 만난 적이 있다. 한번은 이층 법당 입구에 난실을 마련했으니 다녀가라는 전화가 와서 그날 오후에 들렀더니 모시 적삼을 입고 난실안에 계셨다. 식물처럼 착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며, 이재(利財)를 추구하는데는 난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 끝에 난을 모두 처분해야겠다는 충격적인 말씀이 있었다. 난초협회 회장류(天倫) 사이에도 여법한 지를 여쭤 볼 참이었다.



양 원 식
〈해동고 교장·시조 시인〉

문자속에 흐르는 깨침의 말씀

"크게 버리는 사람 크게 얻는다"

동행한 추경(秋耕) 형과 연탄난로가로 가서 식사 주문을 하고 주인에게 "법정스님을 꼭 뵙기 위해 부산에서 왔노라"면서 불일암 가는 길을 물었더니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단다. "지금 스님의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중이신데 몇번이고 스님을 꼭 보았으면 하시는 전갈이 와도 가시지 않고 목탁만 치신다"고 했다. "기도중이어서 어떤 사람도 만나 주지 않는다"는 말을 주석으로 달았다.

이야기를 듣고 섭섭함이 컸다. 그럴수가 있을까. 마지막 이승 아들의 손을 잡아보시겠다는 간절함을 저버릴 수 있을까. 속연(俗緣)을 끊는 법이 이래도 되는 걸까를 반문하면서 송광사 경내만 돌아보고 왔다. 직접 뵙고 "왜 그랬습니까" 하고 여쭤볼 기회를 남겨둔 셈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천으로 계신 스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사연을 여쭈었다.

"노보살 한분이 다녀갔습니다. 이 절 큰 시주이신 분이 향이 그윽한 난초를 달라 하시기에 '물성(物性)이 너무 까다로와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했더니만, 돌아서서 '풀 한 포기 나누어 주지도 않는 것이 어째 중인고' 하시어 순간, '내가 가질 것이 못되는구나, 나누어 줘야지' 했지요."

"소유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깨침도 크다는 것을 알았노라"는 말씀이 바로 무소유로 얻어진 '환희요 부처님의 마음자리임을 짐작하였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 무소유의 이치가 아닐까.

법정스님이 쓰신 '무소유'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사진 곁들여 불교예절 쉽게 설명

깨달음을 향한 불교예절

— 권영한 지음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우리 사찰의 벽화 이야기〉 등을 펴내며 사찰문화를 친근하게 소개해 온 권영한교수(덕은불교대)가 불교예절의 모든 것을 사진을 곁들이며 쉽게 설명한 책을 냈다.

불교예절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절에 가서 당황하게 되고, 불자가 되려 해도 예절과 의식 절차를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권교수는 이같은 이들을 위해 일상 신행 속에서 부딪히는 인사법과 몸가짐, 경전에 대한 예절, 주차 예절 등 불교예절의 모든 것을 쉽고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또 불교예절의 필요성과 사찰 관광 예절, 기도·법회 예절 등도 곁들였다. 〈전원문화사 6천원〉

화제의 책

미얀마 1백세 스님의 생활법문

그대 왜 아직도 미망에서…

— 신동욱 옮김



온 국민이 스님을 최고의 어른으로 존경하고 생활의 근본을 사원이 든든히 지키고 있는 나라, 공원의 수위가 영어·팔리어 대역(對譯) 〈아비담마교의강요〉를 읽을 정도로 불교가 생활화 된 나라 미얀마. 이곳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 중의 한 분인 아쉰 티틸라 스님의 법문집 〈그대 왜 아직도 미망에서 헤매는가〉가 번역됐다.

올해로 꼭 100세가 된 스님은 때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구수하게, 때로는 학승다운 예리함으로 불교의 기초교리를 설하고 있다. 스님은 알기 쉬운 생활법문을 통해 지혜롭고 청정한 삶, 평화로운 삶을 위한 가르침을 펴고 있다. 〈장승 5천5백원〉

새로나온 책...



▲道行般若經 外(김수진·이창섭 옮김)=〈도행반야경〉은 반야바라밀의 법(法)과 이를 수지하는 공덕에 대해 설하고 있다. 이 경은 후한 광화 2년에 한역된 것으로 반야경 계통의 최초의 역경본이다. 〈마하반야초경〉과 〈소품반야바라밀경〉도 함께 번역했다.

〈역경원 1만2천원〉



▲법화경강설(능가스님 편저)=범어사 내원암 회주 능가스님이 쓴 알기쉬운 〈법화경〉 이야기. 〈법화경〉의 세계관과 우주관, 인간관을 설명하고 〈법화경〉에 근거한 신행을 친근하게 소개했다. 〈대흥기획 4천원〉



▲초의茶禪集(통광스님 역주)=조선후기 대선사이자 한국 다도(茶道)의 중흥조로 추앙받고 있는 초의(艸衣)선사의 〈다신전(茶神傳)〉 〈동다송(東茶頌)〉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를 경남 하동군 칠불사 주지 통광스님이 번역, 주를 달고 해석을 붙였다. 〈선문사변만어〉는 처음 번역됐다. 〈불광 8천5백원〉



▲불교와 인도사상(김형준 옮김)=기원전 6세기 경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하게 된 문화·정치·사회적 배경등을 통해 초기불교의 근본사상을 다뤘다.

저자인 비슈와나스 프라사드 바르마 교수(인도 Panta대)는 초기불교를 베다와 우빠니샤드 및 다른 인도사상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했다.

〈예문서원 1만원〉



▲육묘법문(이동형 편저)=〈대안반수의경〉과 〈수행도지경〉에 근거, 부처님의 수행법을 설명한 지자(智者)대사의 〈육묘문(六妙門)〉과 의상대사의 〈법성게(法性偈)〉를 주해한 성규스님의 〈의상법사법성게科註〉를 번역했다.

〈대흥기획 3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기도	일 타	효 림
2	달을 듣는 강물	김 진 태	해 냄
3	능엄경 주해	운 허	동국역경원
4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5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6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김경빈·최용우	고려원미디어
7	나를 보게 하소서	현 장	민 족 사
8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9	역사로 읽는 원효	김 상 현	고 려 원
10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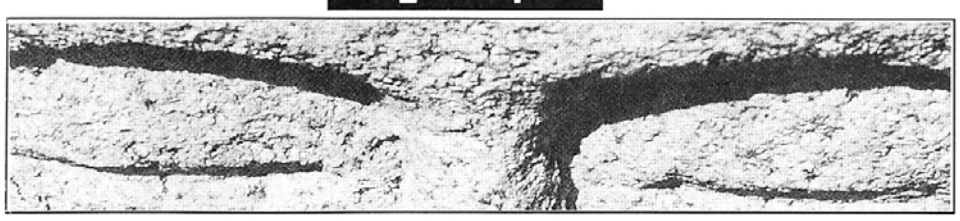
구입문의:(02)737-0695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의 남산석불 이야기 그 첫번째

10여여년간 남산의 돌부처 찾기로 세월을 보낸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의 남산 돌부처 순례기 !!

'세월과 바람이 빚은 한국인'

돌 부 처



남산의 한 골짜기에서 홀연히 맞닥뜨린 돌부처의 미소
'천년의 세월은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 앞에 다가 온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친숙한 얼굴
돌부처.
때로는 근심어린 얼굴로
때로는 잔잔한 미소로,
세상사에 찌든 채
자신조차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알 수 없는 편안함으로 다가서는 돌부처.
돌연 마음 밑바닥까지 투명해짐을 느낄 때
천년의 세월은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 앞에 다가 온다.



신국판 256쪽
값 6,500원

출판사 여시아문 전화 : 737 - 8881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의

경주 남산 석불 사진전

경주남산 석불 이야기 '돌부처'의 모태가 된 남산 석불이 경주와 울산으로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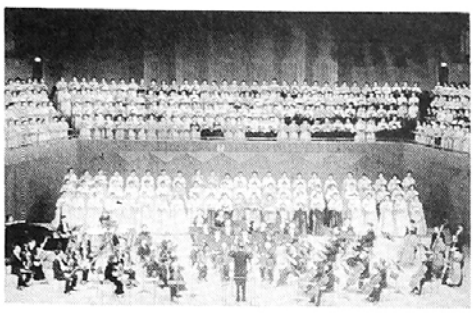
지난 해 12월에 열렸던(서울 세종문화회관 제 3전시실) 「아, 그 미소, 구원의 미소여!」 경주 남산 석불 사진전에서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보여 주셨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는 경주와 울산에서 각각 7일간 전시회를 엽니다. 와서 보시고 우리 문화의 숨결을 느끼십시오.

■ 전시일정

경 주
▶ '96 3월 22일 ~ 3월 28일 경주 현대 호텔 특별 전시실

울 산
▶ '96 3월 29일 ~ 4월 4일 울산 한마음 회관

*현지 전시실에서 '돌부처'를 특별 판매합니다.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종단 차원에서는 최초로 열린 '신춘 불교음악회', 찬불가합창곡집 발간기념으로 개최됐다.

찬불가합창곡집 발간기념「신춘불교음악회」

"찬불가 선율에 새순돋는 불심"

꽃샘바람에 다소 주춤거리는 봄을 재촉이라도 하듯 찬불가 선율이 봄맞이에 나섰다.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는 최초로 지난 17일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찬불가 합창곡집 발간기념 신춘음악발표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음악회는 3백50여 연합합창단과 이영화(소프라노) 김희진(알토) 서윤제(테너)씨 등 15명의 성악가가 출연했다. '보현행원' 등 익히 알려진 노래와 최근에 널리 불리는 '우리도 부처님같이' '무상계' 등 총 17곡이 선보였다. 특히 이 자리에는 '보현행원' '청법가' '산회가' 등을 작사한 '찬불가의 아버지' 운문스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을 지켜보아 눈길을 끌었다.

찬불가 質 향상·보급활성 계기
준비부족등 졸속행사 '아쉬움'

기존의 발표되고 널리 보급된 찬불가중에서 선정하여 찬불가 합창곡집을 발간하고 음악회까지 마련한 조계종은 앞으로 봉축기념 불교음악관련 세미나, 각종의식이나 법회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불자용 찬불가집 발간, 창작찬불가 공모대회 등을 통해 찬불가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런 차원에서 마련된 음악회는 그러나 사전의 충분한 준비없는 졸속행사라는 아쉬움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연습기간이 짧았고 여러 합창단이 모인 연합 합창단이라는 한계로 인해 합창은 들러리가 되었고 기성 성악가들의 중창이 주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또 여러 작곡가들을 안배하려다보니, 애조띠고 무거운 곡이 다수 포함돼 '새봄맞이'에 어울리지 않아 아쉬웠다. 종단에서 마련하고 많은 음악·합창관련 지도자들이 주관한 음악회라면 개사찰의 아마추어식 음악회와는 다른, 수준높은 음악회가 되도록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숙〉

불화응용 남녀의상 패션디자인전 출품

전통불화의 도상을 응용해 이미지패션을 추구해 온 이기향씨(한성대 전임교수)가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42방편을 문양으로 응용한 남녀의상을 선보였다. 지난 16~24일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된 KSFD (Korean Society for Design) 패션전시에서 이씨는 면을 소재로 핸드페인팅과 퀼팅을 이용, 화려하면서도 독특한 불교소재 의상을 전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관세음보살의 중생교화 42방편을 응용한 이기향씨의 패션.

'전통문화학교' 설립된다

정부, 4년제 정규대 99년 부여에 개교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4년제 대학이 설립된다.

정부는 국토개발사업의 확대와 문화재의 발굴·보수 및 보존처리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우리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국민의 전통문화 향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국립 전통문화학교'를 오는 9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부여에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13일 국립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불교문화재를 비롯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인식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전망이며 문화재 관련 전문인력이 대폭 확보될 것으로 보여져 교계를 비롯 '문화재연구소'등 관련 단체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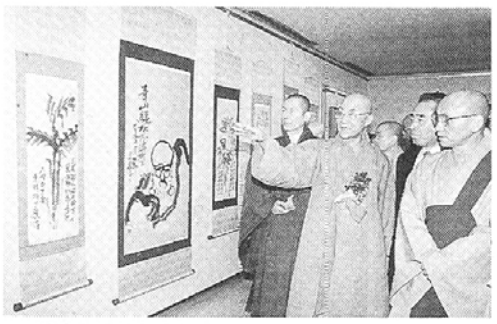
학교설립 주무부서인 문화재관리국에 따르면 향후 이 시행령안이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학교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한 계획이지만 대체적으로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문화유적학과' '박물관학과' '보존과학과' 등 전통문화 관련 9개 학과를 두어 수업료등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하여 우수 학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건조물은 국보 보물 등 총 5천2백99건에 달하며, 이와 관련된 원형보존, 보수 및 정비사업은 연간 약 1천4백건에 이르고 있다. 사찰, 석탑 등 전통건조물 문화재가 많은 불교계로서는 이론과 실기에 능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그동안 보존과 수리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으며 문화재의 원형훼손등 심각한 문제까지 야기시켰었다. 현재 일반 대학에 건축학과가 있지만 고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통건축학과'가 생김으로써 전통건축의 조사, 실측, 설계, 보수, 안전진단 등에 대한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재 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문화유적학과' 설치와 발굴된 문화재의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도맡을 '보존과학과' 설치도 의의가 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학과들의 공통 필수이수과목으로 '불교문화론'이 들어있어 불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학교인 국립 전통문화학교 설치는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전문인력 확보 관점에서 그 설립에 불교계를 비롯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술공예·유적·박물관학과 등 9개학과 예정
문화재 보존인력 양성… '불교문화론' 필수과목

이경숙 기자



◇전시된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소정스님(왼쪽에서 두번째). 월주·현호스님과 김영수 문체부장관이 보인다.



◇정묵스님 작품전에 초청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불화·선묵 두 전시 새봄단장

석정·정묵스님 작품전 '성황'

두개의 큰 전시회가 교계 및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며 새 봄을 여는 길목을 화사하게 장식했다.

○…佛母 석정스님의 불화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석정展'이 지난 20~23일 세종문화회관 제 3전시장에서 성료됐다. 전시회 첫날인 지난 20일 석정서화집 및 시문집, 〈한국의 불화〉 출판기념회에는 석주(조계종 원로의원) 청하(영축총림 통도사 부방장) 만봉(인간문화재)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녹원(동국학원 이사장) 설정(조계종 중앙종회의장)스님 등과 서돈각(진흥원 이사장) 황수영(전 동국대 총장) 김영수(문체부장관) 김용문(문체부 종무실장) 임창순(미원그룹 회장)씨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 '연꽃'을 주제로 한 정묵스님(수덕사 재무)의 수묵전이 지난 20~26일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려 호평을 받았다. 지난 20년간 수행의 방편으로 틈틈히 붓을 잡고 연마해 온 정묵스님의 전시회 첫날인 지난 20일 덕숭총림방장 원담스님을 비롯 설정(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장(수덕사 주지) 현호(법련사 주지) 중광(원로화백) 서돈각(진흥원 이사장), 조훈현(국수)씨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문화 소식

기현스님 연묵전
4월 3일까지 백악예원

기현스님(봉국사)의 첫 개인전 '사문 기현 연묵전'이 백악예원에서 4월 3일까지 개최된다. 반야심경 금강경 규봉선사어록 등 20년간 정진해 온 스님의 선묵 50여점이 선보인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만해스님 사상 '연극화'

일제치하 암흑속에서 불교의 구도정신과 민족과 국가에 대한 깊은 애정과 대쪽같은 지조를 보여주는 만해 한용운스님의 정신을 연극으로 형상화한 '당신을 보았습니다'가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에 올려진다.

'당신을…'은 지난해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공연돼 호평을 받았던 작품으로 노래 춤 풍물 등이 어우러진 총체극 형식의 마당극으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극이다.

기획을 맡은 신명기획단 늘푸른기획은 서울공연이 끝나면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순회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문화 CI작업 추진

문체부, 석굴암등 유산 국가이미지로

문화체육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해 우선 떠올리는 대표적 국가이미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한국문화 CI(Corporate Identity 통합이미지)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문체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뚜렷한 국가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주로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CI 관리기법을 도입, 석굴암과 불국사, 한복, 태권도 등 뛰어난 독창성과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을 국가이미지로 정립하기로 하고 '한국문화 CI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여론수렴과 연구를 거쳐 CI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불심시심 〈47〉

원님과의 하루 밤

古寺寒杉影 (고사한삼영) 옛 절에는 싸늘한 삼나무 그림자
荒城暮角聲 (황성모각성) 거친 성에는 저녁 알리는 나팔소리
忽聞新尹政 (홀문신윤정) 마침 새 원님의 정치 소문 들으니
聊慰老僧情 (요위로승정) 이 늙은 중의 마음 위로되네
雪壑歸樵語 (설학귀초어) 눈 구렁에는 돌아가는 나무꾼의 이야기이고
風枝睡鵲驚 (풍지수작경) 바람 이는 가지에는 놀라 깨는 까치의 꿈
懸燈共一宿 (현등공일숙) 등 밝혀 하루 밤의 정다움
池閣夢魂清 (지각몽혼청) 못가의 누대에 정신이 맑다

위 시는 백곡(白谷)대사가 개원사에 있을 때 유씨(兪氏)인 지방장관에게 준 시이다. 유씨가 누구였는지 알 수 없으나 새로 내려온 지방장관으로 절에서 하루 밤을 지낸 것 같다. 전편의 시는 주변 사물의 모든 것이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감싸주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정을 깊게 느끼게 하는 시의 구도이다. 대경의 경치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름다운 인정이 개입되지 아니하면 아름다울 것이 없다. 이 주변과 나그네 그리고 자연이 하나로 어울릴 때 한결 다정해 지는 것이다.

첫째 연에서 옛 절과 거친 성으로 맞선 경치는 스님이 있는 산사와 지방장관이 있는 관사로 대비시켜 서로의 그리움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설정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다음 연에서 새로 부임한 관리의 정치와 늙은 산승의 정을 대비적으로 읊고 있다. 이 시는 이렇듯이 기승연에서 처지가 다른 두 상황을 대비만 하면서도 수식이나 설명이 없이 있는 상황 그대로이다. 이 점이 바로 시는 시로써 만족하는 자연스러움이다. 미사여구로 장식한다고 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둑알 두듯이 그대로 놓아 두고 작자는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시의 묘미다.

이 시의 구도도 매우 성공적이다. 기승연에서 두 곳의 상황을 담담하게 서술한 것과는 달리 전연에서의 서술은 경관의 상황을 아주 아름답게 서술하고 있다. 눈쌓인 계곡을 내려오고 있는 초동들의 재잘거림의 사실성도 그러려니와 그에 대칭되어 있는 대구의 수사적 묘미는 참으로 놀랍다. 바람가지에 까치의 잠이 놀란다 함은 한 구절에 있어서 동정이 교차되어 있다. 바람은 움직임이요 졸음은 조용함이다.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어 놀란다는 끝 글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지내는 밤의 꿈이 맑다 하였으니 두 사람의 그 청정한 사귐이 그림처럼 떠오른다. 옛절과 거친 성으로 떨어져 있던 두 경계의 거리가 끝연에 와서 하루 밤의 잠으로 좁혀져 맑은 꿈으로 변하였다. 시의 구성 또한 시정 못지않게 깔끔한 짜임새로 이루어졌다. 두고 두고 은은한 정감이 넘쳐난다 하겠다.

이중찬 〈동국대 교수〉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척추교정·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조립식 건물(주택)
저희 신화개발은 불자가 경영하는 조립식 건물 전문 시공업체로서 성실과 봉사로 불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주택) 경량 칸막이 시공
칼라·아스팔트·쉉글
전화 (053) 742 - 7855
051 - 717 - 7792
011 - 532 - 8454
(주) 신 화 개 발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팩스:(02)266-267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40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회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보 및 대법종주조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연꽃 잉어화 기타(병풍, 액자, 족자용)
거송 동양화 화실
거송 철학원(운명 조언)
서울시 용산구 청라 1가동 140 - 3 (홍신빌딩 308호)
전화(02)3273-0081
●진품 버락 맞은 대추나무(도장, 부적재료) 진품 식별법 및 진품 공개!!

정신·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상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실을 누리게 된다.
선 관 단 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체신제 폭송 기타 · 공복장이 없다
• 도서, 해독제, 열분 · 자련당 · 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영물심태수련 · 선관심태수련 · 현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받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호 엘리트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수련장 사천시 송현면 와룡산 송남선원
안내 ☎ (0593) 34-1115-6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품사 업적
• 합천(해인사):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의왕시(대원사):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법당 수미단 옹각 목귀함
• 음성(삼보사):대웅전 문짝
• 화천(법정사):대웅전 영무전 문짝
• 성남(봉국사):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설덕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대웅전 수미단 옹각
• 포천(약천사):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회문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 철저한 1 : 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개별지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투고투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 드림—
학사학위취득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서양인 선호하는 수행법 '무엇'

출가·열반절기념 트리싸이클지 '천년왕국…' 기획 소개

출가·열반절을 맞이해 미국에서 발간되는 세계적인 불교잡지 트리싸이클 최근호에 실린 '천년왕국의 수행'을 발췌, 서양인의 수행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글에서 서방불교 종단(FWBO, Friend Western Buddhist Order) 의장 상가라시타(영국)와 감포(Gampo) 수도원장 앤 페마 쵸드론(캐나다)이 '자유로운 수행'과 '형식화된 수행'을 각각 권유하고 있다.

'천년왕국의 수행'의 기획자인 스테판 벡 쉘러는 "서양의 수행관은 '깨달은 자'로서 최고의 진리를 추구했던 아시아의 전통에서 벗어나 19세기 계몽주의의 시대적 사유(思惟)를 배경으로 수행을 한정짓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서양의 변화된 수행관을 지적했다. 〈편집자 주〉

加 감포수도원 쵸드론 원장



수도원 수행

절제로 인연고리 끊는 공부

수도원이란 수행자를 위한 열린 공간이다. 수도원을 통해 수행하는 수행자는 자연스럽게 동료간의 '유대'와 스승들의 '가르침'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수행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원동력, 즉 '유대'와 '가르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수행자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는 '동료'와 '스승'이란 친분관계가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수행자가 맺는 '인간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수행자를 '혼돈'에 빠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료'와 '스승'과 같은 인간관계란 독소(毒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수도원 수행을 권유하는데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수행자의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라면 분명히 자신이 거머쥔 인연의 고리를 통해 배우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원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완성한 깨달음은 열린 마음을 통해 불완전한 사부대중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리고 구성원 상호간에 진정한 교통이 이뤄지는 사회, 옳고 그름의 구분이 필요가 없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FWBO 상가라시타 의장



자유수행

제도벗어나 영감·지혜 얻어

오래도록 경전을 읽고 부처님 시대의 기록을 보았지만 수행자들을 위한 특별한 수행처가 있었다는 기록은 보질 못했다.

특히 부처님은 동시대의 사회적 규범에 대해 몹시 회의적인 태도를 지녔다. 그리고 부처님은 울창한 수림을 자랑하는 대자연을 유유히 돌아다니며 수행하고 설법했다. 나는 이것을 비형식적인 수행이라고 일컫는다.

현대에는 수도원과 같이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새롭게 만든 특별한 사회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사회라 할지라도 사회구조란 본래부터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항상 품고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수행처에서는 수행자에게 항상 특별한 규제를 강요하게 되고,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자세인 '열정'과 '영감'을 억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티벳승려 두드좀 린포체가 94년도에 영국을 방문해 열었던 집회를 잊을 수 없다. 린포체가 설법하는 동안 집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각각의 신분에서 벗어나 진정한 친구로서 교감이 가능했다. 이처럼 스스로 평등해진 영혼이 서로 상호작용해 정신적인 동지애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兩岸평화 불자관심 촉구"

美 불교도우회 대만사태 사이트 인터넷에 호소

중국과 대만 양안 사이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전세계 불교도들에게 평화를 이룩하자는 호소문이 인터넷에 등장했다.(http://www.infinet.com:80/~rinpoche)

전세계의 불교관련 사업들을 지원하고 불법의 홍포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오하이오의 불교도우회(Friends of Buddhism) 사이트에서 '대만의 자유를 보장하라(Keep Taiwan Free)'라는 제목으로 전세계 불교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그것.

불교도우회의 호소문에는 "대만의 평화가 유지되며 중국의 모든 민족이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중국은 대만의 문화와 종교적 자유를 말살하려는 군사적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며 "불교도들이 지혜와 자비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불교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불교도우회 사이트에서는 또 미국 백악관과 중국 정부에 전자우편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중국정부에 반대하는 해외 다른 사이트들과 연계되어 각 상황과 대처 방안들을 불교도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사이트에는 지난 9일 뉴델리에서 "대만의 민주주의가 중국인들에게 민주주의의 동기를 부여하며 중국사회의 개방을 불가피하게 한다"며 "중국민족이 인간으로서 자유와 민주,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한 달라이 라마의 말을 인용해 함께 실었다.



◇태그종 제17대 최혜초 총무원장 취임식이 지난 20일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종단면모 일신 사회사업 역점"

태고종 혜초 총무원장 20일 취임식서 밝혀

태고종이 종단발전기금 1백억원을 마련하고 대사회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태고종 제17대 총무원장 혜초스님은 지난 20일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거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혜초스님은 "종단조직 재정비, 재무구조개선, 21세기를 선도하는 통일 정보 지방자치기구 신설등 종단의 체질을 개선,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종회의장 금담스님의 대독을 통해 종정 보성스님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과감히 청산하고 진실로 청정한 면목을 회복하여 종단이 바로설 수 있도록 매진하라"는 법어를 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이강문 문체부차관, 서돈각 진흥원이사장, 국회정각회 권익현회장, 이재석 종교협의회회장, 홍윤식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이정규 서대문구청장 등 각계인사 2천여명이 참석했다.

조동종 총림개원법회

4월 3일 거제 벽담사

조동종(총무원장 지명)은 4월 3일 오전10시 경남거제 벽담사에서 총림개원 기념법회및 영산수륙대재를 개최한다.

이번 조동종의 총림개원법회 및 영산수륙대재는 창종정신을 되살려 종단발전을 꾀하기 위해 전국사찰에서 사부대중 1만 3천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 이사 12명 선임

btn 2차 주주총회

불교TV는 지난 15일 제 2차 주주총회를 잠실 향군회관에서 1천여명의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끝난 김길원감사의 재선임과 12명의 새이사 선임이 결의됐다. 새로 선임된 이사는 혜초(태고종 총무원장), 락혜(진각종 통리원장), 설정(조계종 중앙종회의장), 광우(전국비구니회회장), 목산(통도사 주지), 성오(범어사 주지), 도영(금산사 주지), 현호(법련사 회주), 동광(도선사 주지), 지홍(낙산사 주지), 종열(화엄사 주지), 법등(직지사 기획실장) 등 12명이다.

불교 청주방송 28일 사옥 기공식

불교청주방송이 오는 28일 청주시 성화동 신축사옥 기공식을 갖는다.

13억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연건평 4백50평) 규모의 불교청주방송사옥은 오는 9월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법주사 주지 월성스님을 비롯 청주청원불교연합회 회장 원봉스님등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하게 된다.

BBS 봄프로 개편

포교물 대폭 강화

신행·가요·스포츠등 기획 다양

BBS가 봄을 맞아 4월1일부터 포교방송의 기치를 내세운 다양한 새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봄개편에는 불자들의 숨은 신행과 인연이야기를 따뜻한 터치로 엮어나갈 '우리도 부처님같이'와 불교관련음악을 현장 답사, 채집을 통해 직접 제작한 기획프로그램 '불교음악 순례', 원로스님들의 삶을 직접 들어보는 심야토크쇼 'BBS초대석' 등 포교프로그램이 대폭강화됐다.

이와 더불어 교양오락부분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단장했다. 오후시간의 나른함을 신나는 트롯트 음악으로 해소시킬 '오후의 가요산책'과 불자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까지 충족시켜줄 'BBS스포츠' 등이 마련돼 봄을 맞아 활기넘치는 불교방송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다.

신설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일요기획 맑고향기롭게(일요일 오전 7시10분)

▨가람을 찾아서(월~토요일 오전 8시30분)

▨BBS스포츠(월~토요일 오전 8시40분)=본격적인 스포츠 시즌을 맞아 프로야구, 월드컵축구, 애틀란타 올림픽 등 각종 경기소식을 종합, 정리한다.

▨오늘의 법구경(월~일요일 오전 11시5분)

▨오후의 가요산책(월~일요일 오후 4시10분)

▨우리도 부처님같이(일요일 오후 5시20분)=부부나 도반, 사제간 등 평범한 불자들의 숨은 인연이야기로 엮어가는 훈훈한 온정의 시간.

▨불교음악순례(일요일 오후 9시5분)=오랜 불교역사속에 묻혀져 있던 모든 불교 관련음악과 의식을 담아낸다.

▨BBS초대석(월~일요일 오후 11시 25분)



「카루나」 개봉

민족분단의 한과 통일의 염원을 불교적 시각으로 승화시킨 영화 '카루나'(감독 이일 목)가 지난 16일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서 일제히 개봉됐다. 카루나에는 물자와 스님등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스카라극장=고영배 기자〉

5대 적멸보궁 '화면답사'

불교TV 열반절 특집

부처님 열반일을 맞아 불교TV는 기획제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열반일 특집 5대 적멸보궁을 찾아〉를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 15분에 방송한다.

이 프로는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인 통도사 금강계단, 오대산 중대 상원사,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법흥사, 설악산 봉정암을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씨와 함께 답사 기행하며,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우리나라에 모셔지게 된 배경을 알아볼 계획이다.

특히 부처님의 진신사리에 대한 불자들의 지극한 추앙은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고 진신사리에 대한 경배의 참뜻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

목탁소리

조계종 개혁불사 2년

이 준 엽 〈취재1부 차장대우〉

조계종 불교자주화 개혁의 시발점인 3·29법난 2주년을 앞두고 개혁불사를 주도했던 재야단체들이 고민에 빠져있다. 지난해, 3월29일부터 4월10일까지를 '개혁불사 계승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쳤으나 금년에는 구종법회를 계승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4·11총선, 김대통령의 종교편향규탄, 성직자양성대학원 백지화 등 종단적으로 해결해야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개혁불사 2주년이 밀쳐진다고 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개운치가 않다.

94년, 당시 개혁불사는 사부대중이 온몸을 던져 이룩한 귀한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스님은 물론 재가불자들까지 분연히 일어서 마침내 현 종단을 일으켰다. 개혁불사는 이렇게 전대중의 동참으로 시작됐던 것이다.

개혁불사가 진행된지 2년째. 그동안 종단 집행부는 법령정비, 종권분할, 공개운영등 획기적으로 종단을 개선해 왔다. 특히 개혁전만 해도 20여억원에 불과하던 종단예산이 금년에 1백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러한 개혁불사의 성과물로 여겨진다. 그러나 종단 집행부의 개혁의지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의 개혁불사 체험지수는 형편없다. 대표적인 부분이 비구니와 재가불자의 개혁동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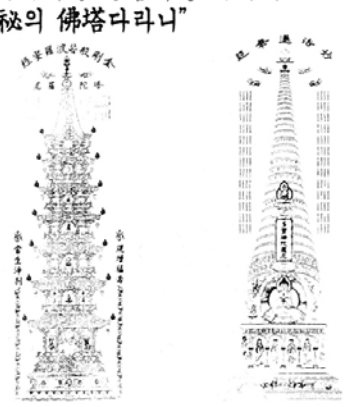
비구니스님들은 아직도 종단운영에 소외당하고 참정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불만은 재가자의 경우 더욱 심하다. 재가자의 위상이나 종단참여가 개혁전보다도 오히려 뒤쳐졌다는 것이다. 개혁불사가 사부대중이 아닌 비구스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주고있는 것이다.

개혁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2년전에 불이 붙은 개혁불사는 사부대중의 혼연일치로 이루어졌다. 대중 가운데 어느 부분이든 소외된다면 개혁불사는 계승될 수가 없는 것이다. 요즈음 개혁불사를 선도했던 재야단체가 고민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佛事(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님께 알려드리는 귀중한 정보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시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 (세로) 160cm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가 발산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서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관단하여 運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 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일차로 금년에 1,000군데 사암에 보내드려 큰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리오니 주소, 사찰명, 전화번호만 알려주시기 바라오며, 이 책자는 현재 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方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運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 있으며

② 영가의 빙의상태, 관념과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빙의 및 관념과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줄 수 있으며

④ 산소에 탈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령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치도록 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 수 있고

⑤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펜치도록 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님은 다년간 경험을 해본결과로, 그 신비성이 확실함을 알게 되어, 이번 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佛子들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의 운세와 운명을 몹시 알고자 하며 또한 나름대로 간절한 염원과 소원들이 있어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편을 스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탑다라니가 스님의 기도법력과 합해져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입니다.

■ 상담문의 :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 864-3740

■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해 명 서

현대불교신문 3월20일자(제70호) 2면 하단에 게재된 [한국불교교화원 성명서]에서 3명 대표자 이름중 "감사 이 정명"은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이름을 사용하였음으로 이 정명과는 무관함을 해명합니다.

불기 2540년 3월 19일

이 정 명 합장

근대승생활불교강좌근

제3기 개강 4월15일

1. 예불의식, 재불공 49제 구병시식등
2. 氣운동 심신수련 (월~금 오전 6:30~7:40)
3. 풍수지리, 주택건물감정, 묘지쓰는법
4. 5운6기 사주학, 평생궁합운세, 길흉법

◇강좌기간 : 각반 3개월 선착순 30명
수강대상 : 불교지도자로 활동하실분
강좌시간 : 월,수요일 (4시반, 7시반~9시)

◇위 치 : 서초3동 1552-10 서초역에서 2분 (변호사회관~홍부네슈퍼~정우이발관뒤)

※신행상담및 화끈한 운세감정※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포교회관 內

접수문의 : 02) 523-0241, 0243

"선생님이 교실서 선교행위"

찬송가 부르게 하고 예배참석 강요
교회 가지 않는 학생에게 청소시켜

포천 송우초등학교 2학년 李모 담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회출석을 강요하는 등 교단을 선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포천 송우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해 이 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이모교사가 담당학급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회출석을 강요하고, 이를 확인키 위해 찬송가를 부르게 하는 등 교단에서 노골적으로 특정종교 선교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94년에도 학생들에게 교회출석을 강요했으며, 교회에 가지 않는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해 체벌까지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교사의 거듭된 교회출석 강요로 한 불자어린이는 원형탈모와 무기력증세를 나타내 지난해 10월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담당의사에 따르면 "종합진단을 해봤으나 신체적인 이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 교회에 나가라는 선생님의 강요와 친구들과의 적응문제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모교사는 그후에도 수업시간 전후에 학생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쳤으며, 심지어 집에 가서 보라고 찬송가를 복사해서 나눠주기도해 개신교신앙 강요행위를 계속했다.

이에대해 이모교사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엉뚱한 답변을 했다.

이같이 교회출석을 계속 강요하자 학부모들이 교장에게 "교단에서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두차례에 걸쳐 항의했으나 신모교장은 곧 다른 학교로 전근갈 사람이니 교육청에 투서해도 필요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신모교장은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담당교사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의 종교를 피력하면 안된다'고 주의를 줬다"며 "지금은 다른 학교로 갔으며, 다 끝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모교사는 지난 3월부터 의정부 ㅅ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동국대 교육학과 박선영교수는 "특정정파와 계층 종파에 치우치는 교육을 해서는 안되는 공교육현장에서 교회출석을 강요하고 확인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교활동이며, 특정종교를 공공연히 강요하는 교사는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단에서 특정종교를 강요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밝히고 현재 포천군교육청에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포천=정성운 기자〉

광명의원·중앙승가대학 결연

6개 도시서 무료진료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운영하고 있는 광명의원이 중앙승가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기로 합의해 학인스님이 앞으로 광명의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승가대학 자매결연을 통해 무료진료 혜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광명의원은 승가대에서 제출한 전교생 명단을 바탕으로 평생회원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승가대 스님들은 서울, 청주, 군포 등 연꽃마을 산하 전국 6개 광명의원에서 진료와 검진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광명의원과 승가대학은 4월초 정식합의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건강기원 만수재 개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불자노인들을 위로하고 건강을 기원하기 위한 한마음 만수재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주최로 지난 20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부산거주 7백여 불자노인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합창단의 찬불가를 시작으로 부채춤, 사물놀이, 할머니 할아버지 노래자랑 등이 펼쳐졌다.

만해불교대 21일 개원

대한불교청년회 부설 만해불교대학(학장 석주)이 지난 21일 개원됐다. 1년과정인 만해대학은 불교혁신과 대중화를 위한 청년지도자 양성에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만해대학은 1학기에 불교학개론, 경전강독(반야심경), 불교사상론(만해사상과 정신)을 강의하며 2학기에는 불교교리발달사, 현대사회와 불교, 청년지도자론, 경전강독 등을 교육한다. 한편 만해대학 졸업자에게는 조계종 포교사 응시자격,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1·2·3급) 응시자격 우선부여, 각 청년회 지도자 자격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대전 대학생불교교육원 개원

정법체계 교육…지역불교·포교활성 교두보

대학생 포교를 위한 전문교육시설이 중부권내 최초로 개설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전지부 동문회가 설립한 대전대학생 불교교육원(원장 박형권)은 대학생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30일 괴정동 생활불교회관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대학생포교에 나선다.

최근 전국 각 대학내 불교단체가 신입회원의 급격한 감소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포교를 전담키 위한 전문교육원이 개원된다는 점에서 지역불교와 대학생포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전대학생 불교교육원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3시간동안 불교교리의 이해를 위한 불교영어(한태호 대전실대교수), 불교학개론 및 사상(장휘옥 동국대교수), 경전강독(김덕수 박형권법사) 등을 교육하게 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또 방학기간을 이용, 단기출가를 실시하며 3년 전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실시 조계종 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큰지혜 나눔터' 강좌

서울대불련, 신입생 대상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하재길) 서울지부가 오는 28일부터 6월7일까지 신입생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큰지혜 나눔터'라는 주제로 개설되는 이번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동산불교대학 법당에서 개최된다.

'청교도적…' 발언 관련
宋총장 인사조치 요청

종립학교관리위, 동국학원에

종립 동국대 송석구총장이 방송을 통해 '청교도적…'이란 표현을 해 물의를 빚고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설조)는 지난 20일 제18차 회의를 갖고 송석구총장(동국대)의 인사조치를 동국학원 이사회에 공식요청키로 결의했다. 송총장은 지난해 11월 21일 SBS 8시 뉴스에서 '정경유착 진단과 처방'으로 "청교도적인 명예혁명을 가져오지 않으면 정경유착을 끊을 수 없다"고 발언, 불자들의 항의를 받았다는 것.

한편 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석중인 동국학원 감사에 정휴(불교신문 사장) 법일(종회의원)스님을 복수추천하고 승가대 감사에 정념(수석사서) 정수(용문사주지) 지홍(낙산사주지) 원우(재무부장) 혜담(선우도량상임대표) 일연(동학사주지)스님을 복수추천했다.

관리위원회는 또한 동국대 손성 교수의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 종립학교위상을 위해 차후 교수자질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처할 것을 동국학원 이사회에 정식 요청키로 했다.



◇김영삼대통령의 종교편향정책을 규탄하는 범불교도 대회가 대구·마산·부산에서 개최됐다. 지난 19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부산불교도 결의대회에는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부산=박병근 기자〉

종교편향 시정촉구 연일 규탄

대구·마산·부산 범불교도 정법수호 결의대회…사례집도 배포

지난 1월 김영삼대통령의 국군 중앙교회 예배건을 계기로 표면화된 정부의 종교편향정책을 규탄하는 범불교도대회가 대구 마산 부산에서 연일 계속됐다.

지난 17일 대구를 시작으로 확산된 범불교도 정법수호 결의대회에서 불교인들은 현정부의 종교편향정책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현정부의 종교편향정책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천명했다.

무공(동화사주지) 법조(고운사주지) 설조(불국사주지) 등 대구 경북 5개 본말사 주지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구 정법수호 결의대회에서는 지난 93년 2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48건의 종교편향 사례집을 배포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 일련의 종교편향 사태에 따른 불교도의 자세를 견지했다.

규탄법회에 이어 스님들은 모 호텔에서 회합을 갖고 앞으로 각 사찰단위의 규탄법회 개최, 현수막 설치 등 조직적인 규탄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또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지안)도 19일 마산 정법사에서 마·창 범불교도 정법수호 결의대회를 갖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특정종교의 우위나 전도 및 교육을 명문화하여 정치의 한 부분으로 삼는 일은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부산불교도 결의대회에서는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 일련의 불교 경시정책에 대한 부산불교도의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대회는 또 경주고속전철 도심통과와 벌어사 앞 고속전철 지상화 백지화 등 각종 불교관련 불합리한 법의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불교표를 잡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신한국당은 19일 강선영 불교대책위원장을 급히 조계종 총무원에 보내는 한편, 서석재 선대위 부위원장을 통해 불교계 지도자들에게 현 정부나 당이 불교계에 차별대우 하는 일이 없다고 강조하는 등 파문진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 불교정책 엄중 경고

종교편향 비대위 30일 조계사 규탄대회

김영삼대통령의 편향적 종교정책 규탄대법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21일 조계종 총무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편향정책이 시정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준비위는 정치적 목적과 필요에 의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부의 대불교정책을 경고하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의 언술에 호도됨없이 '지혜'와 '안목'을 가지고 향후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준비위는 오는 30일 조계사에서 '김영삼정권의 편향적 종교정책 규탄대법회'를 개최한다.

속초 보광사 공찰등록
창건주 탄원서 제출

지난 20일 속초 보광사 창건주 이순덕씨는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보광사의 조계종 공찰등록을 재차 촉구했다.

이씨는 탄원서를 통해 "지난해 8월 보광사의 공찰 헌납을 총무원과 종회에 상정했으나 아직 등록받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종단에서 공찰등록을 받아 포교도량으로 원활한 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아직도 일부 세력들이 보광사를 자신들의 사설사암으로 만들어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불서 꼭 필요합니다"

러 크라스노다르 한인회 본사에 서신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한인지역에서 사찰을 운영할 한국인 스님과 한글 불교서적을 기다리고 있다.

크라스노다르 종합대학 학장이자 한인회 회장인 김영수씨는 "이 지역 한인들은 불교 신행을 원하고 있으나 사찰과 지도해 줄 스님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불서라도 있으면 읽고 불교에 귀의할 텐데 그마저 형편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본사로 보내왔다.

크라스노다르 지역은 2만여명의 한인교포가 살고 있으며 현재 개신교 선교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반응이 거의 없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

이 지역 한인들은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제사의식을 불교적 의례로 정례화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정서적으로 불교이외의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고 김씨는 덧붙였다.

"안성이전 불가 김포학사 고수"

승가대운영협의회

중앙승가대학 운영협의회는 지난 15일 학사이전과 관련 회의를 열고 김포 이전불사는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교수 교직원 학생대표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는 김포이전 불사를 성취하는 것이 정규대 승격을 위한 가장 신속하고도 실현가능한 방안이라며, 학교 당국과 이사회에 정규대 승격과 학사이전 불사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수협의회·학생회, 동창회도 김포 이전불사를 지지하고 나섰다.

교수회와 학생회는 또 학교 당국과 이사회에 대해 학교발전을 위한 제반계획을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구독신청: 737-0693

마음 '나'라는 실체 없다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면 '나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벗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나는 공한 것, 나라는 실체는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천마음운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모이자! 조계사로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김영삼 정권의 편향적 종교정책 규탄법회

김영삼 정권 출범 3년
17사단 법당폐쇄 및 훼불사건
3·29 법난
조계사 공권력 투입
국방부 교회 예배사건
특정 종교만을 위한 교육 개혁안
부활절을 피하기 위한 국가시험 시간변경 등등…
총선이후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여
김영삼 정권의 노골적인 편향정책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국민의 권리!
되찾는 길이 있습니다.
편향적 종교정책을
비판하며 불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학인스님들과 재가청년불자들이
중심으로 불자들의 동참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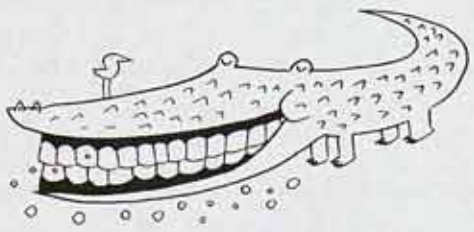
"내 종교가 소중하다면 타인의 종교도 소중함을 일깨워 줍시다"

문의전화: 735 - 4437 농협: 053-02-082921 · 예금주: 이명순 (전승련 간사)

건강백세 ⑧

입

입은 구조적으로 음식을 먹기에 아주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아니 잘 적응되도록 진화를 거듭해서 좋게 다듬어진 것 같다. 입안에서 잘게쪼개진 음식은 타액과 골고루 섞여 식도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 최근 먹기 편리한 가공식품들을 많이 애용한 결과 입이 너무 편하게 되어 몸에 자주 고장이 나는성 싶다. 시간이 걸려도 자기입으로 제대로 씹어먹는 식사가 건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음식 잘씹어 먹는게 건강 첫 걸음
감기·과로땐 열발생 입주변 염증

입맛의 적은 단맛(甘味)이다. 너무 단것이 흔해진 세상이라 입맛이 변해 버린것 같다. 예전에 그렇게 맛있게 먹던 시골 반찬들이 이제는 전과 달리 맛없이 느껴지는 것은 순전히 조미료와 감미에 잘못 길들여진 내탓일 것이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은 얼마나 단것을 잘 조절 했는냐에 달렸을 정도로 중요하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단것을 많이 섭취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성격이 신경질적이며 저항력이 낮아 신체가 허약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보여 관심을 끈다. 편식등 불완전한 식이는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의 골격형성이나 지능발달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다. 심지어는 얼굴형태나 성격에까지 영향을 주므로 유의해야한다.

구강(口腔), 설염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구강내질환으로 구내염이라고도 하며 접촉 감염 치아 치주 또는 점막조직내에 잠복하고 있는 세균감염으로 인한 경우나 비타민B나 비타민C 등의 결핍에 의한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생관리와 비타민이나 영양소의 작용이 요구된다.

한의학에서는 입을 위의 개구(開口)로 보아 위경(胃經)에 열이 많아졌을때, 혀는 심장의 싹으로보아 심경에 열이 많아졌을때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감기나 과로, 심적 고통등은 열을 많이 발생시키고 비타민 과잉소모로 인한 상대적결핍을 초래해 평소때의 섭취량만으로는 부족하게되어 염증이 일어나게 될수 있다. 그러므로 청위산(淸胃散)이나 성심산(醒心散)같은 청열제(淸熱劑)와 비타민B, C를 대량 투여하면 의외로 빨리 호전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한마음의 등불 ①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본사 사장상〉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경찰병원 법당에서 기도와 청소를 했다…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일년을 그렇게 하니 외가 식구들까지 거들었다

경찰병원법당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금부터 3년전 구월 중순의 어느날입니다. 경찰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목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좀 와주세요!" 하고 아들 상원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도 놀랐습니다.

군복무를 하게 된 제 아들 상원이를 만나고 담당 의사선생님도 만나뵈었습니다. 건강하던 아이라 별로 걱정은 안했습니다. 목에 종기가 난 것이라며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아물때까지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서 아들은 부대로 돌아 갔습니다. 수술후에 후유증이나 흉터만 크게 생기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발원했습니다. 그런데 상원이는 날이 갈수록 수술한 자리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아물지가 않아서 그러려니 생각했지요.

12월 하순경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 수술을 한다구요. 놀란 가슴으로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하고 집에 와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부모를 부르는 예는 드문데 오라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다음날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이모하고 동행을 하여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보니 과장선생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미리 예감이 들기는 했지만 설마 했었습니다. 아들의 환부가 너무 깊어서 손을 못쓴다고 하시면서 '젊은 놈이…' 하며 속상해 하였습니다. 갑자기 전신에 힘이 빠지면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CT촬영 결과 상처가 더 퍼졌다는 것입니다. 제대를 한달 앞두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서류때문에 제천까지 새벽 첫차를 타고 가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외과에서 치료받던 것을 이비인후과로 옮겼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약물치료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방사선 치료나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말을 듣는 순간 어찌나 목이 메이고 눈물이 솟구치는지 한없이 울었습니다. 본인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병원에는 방사선 치료가 안되어 중남동 중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고 오는 날은 먹지도 못하고 반 혼수상태가 되었습니다. 날이 가도 병의 차도는 보이지 않고 이러다가 자식을 잃지나 않을까 두려움마저 일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저였지만 막상 제게 이런 시련이 닥치니 부처님, 하느님, 천지신명님 벌벌 뭘 말 안될 말 분간조차도 못하면서 제 자식을 살려달라고 미친 사람처럼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던중 경찰병원에 경승실 법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무조건 법당에 들어가 절을 올리고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올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뭔가 해야했다는 생각이 들어 법당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탁자와 창틀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계속하다보니 청소를 하고 주변을 깨끗이 하는 일이 마음을 바로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장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집은 남가좌동이고 경찰병원은 가락동입니다. 집에서 병원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출퇴근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됩니다. 만일년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온 집안, 외가집 식구들까지 한마음이 되어서 지장기도를 백일 이백일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셋째이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한다며 방사선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잘 먹어야 한다며 고단백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몸을 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었고 중앙병원에 데리고 다니는 일도 맡아 해주었습니다.



그림 · 이준석

방사선치료에 들어간 두달동안은 먹지도 못하고 변도 못보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습니다. 체중이 25kg나 빠지고 눈의 실핏줄이 터져서 빨갛게 상기되고 24시간 토하기만 했습니다. 가래와 심한 냄새 때문에 식사가 들어오는 시간이면 병실 딴 환자들에게 무척이나 미안하였습니다. 물 한모금 마시려면 목에 마취약을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중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계속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중앙병원에도 지하에 법당이 개원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고맙고 힘이 생기던지….

청 정 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 Deity : 'We know this to be so, this is the fifth loser ;tell us the sixth, O Bhagavat, w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100)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여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 Bhagavat : 'The man who is possessed of much property, who has gold and food, (and still) enjoys alone his sweet things, - t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101)

"풍족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귀금속과 먹을 것을 자기 혼자서만 독식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 Deity : 'We know this to be so, this is the sixth loser ; tell us the seventh, O Bhagavat, w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일곱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㉙

♦ Bhagavat : 'The man who proud of his birth, of his wealth, and of his family, despises his relatives, - t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103)

"혈통을 뽐내고 재산과 분발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친척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

♦ Deity : 'We know this to be so, this is the seventh loser : tell us the eighth, O Bhagavat, w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104)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여덟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 possess (v) 소유하다, 가지다
* property (n) 재산
* despise (v) 경멸하다
* relative (n) 친척, 일가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싯다르타 ⑧

헤르만 헤세 作

"너는 이제 숲으로 가서 사문이 되도록 하여라. 숲에서 행복을 찾거든 이 아비에게도 가르쳐 주려므나" 싯다르타는 아버지로부터 출가를 허락 받고 다음날 아침 길을 떠났다. 친구 고빈다도 함께 길을 떠났다. 두 사람은 사문들의 집단으로 들어가 고행을 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3년간 아무 탈 없이 고행의 수업을했다. 어느날 이들은 고타마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고타마는 숭고한 분이며 부처이며 속세의 고뇌를 극복하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춰 놓은 분이라고 했다.

싯다르타와 고빈다는 직접 그 현자를 만나기로하고 길을 떠났다. 사비티에서 두 젊은 수행자는 수백명의 제자들에게 에워 싸여 있는 조용한 얼굴의 고타마를 볼 수 있었다. 그의 얼굴과 걸음걸이 조용한 사선 조심스럽게 내린 손과 손가락들은 평화를 말하고 완성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부처를 따라 고을까지 갔다가 말없이 돌아 왔다. 고빈다는 그 분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했고 허락도 받았다. 하지만 싯다르타는 망설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싯다르타와 고빈다는 헤어졌다.

"뱀이 묵은 껍질을 벗듯 무언가 떠나갔음을 확인했다"

싯다르타는 완성자 부처가 머물고 있는 성림, 벗인 고빈다가 장차 머물게될 그 숲을 떠나며 그곳에다 그때까지의 자기 생활도 떼어놓고 떠나는 느낌이 들었다. 싯다르타는 서서히 생각에 잠기며 걸었다.그는 이미 자신이 단순한 젊은이가 아니라 하나의 성숙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뱀이 묵은 껍질을 벗듯 자신으로부터 무언가가 떠나 갔다는 것을 확인 했다. '오, 이제 나는 내게서 싯다르타를 놓치지 않으리라. 더이상 아트만이나 속세 고로부터 나의 사색과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리라. 더 이상 그 과편 속에서 비밀을 캐내기 위하여 나 자신을 죽이거나 부수지 않으리라' 그는 난생처음 세상을 보듯 주위를 둘러 보았다. 세상은 아름다웠다.

싯다르타는 걸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 밤이 되었다. 그는 어느 강가에 있는 뱃사공의 오두막에서 잠을 자며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고빈다가 누런 법복을 입고 그 앞에서 있었다. 슬픈 표정의 고빈다는 슬픈 목소리로 그대는 왜 나를 버렸느냐고 물었다. 싯다르타는 고빈다를 끌어안고 입맞추었다. 그런데 그것은 고빈다가 아니고 한 여인이었다. 잠에서 깼을때는 희미한 강 물빛이 오두막의 문틈을 통해 비쳐들었으며 숲 속에서는 신비한 울음소리가 깊고 우렁차게 들려왔다.날이 밝자 싯다르타는 뱃사공에게 강을 건네 달라고 했다. 큰 고을에서 그는 커다란 장원앞에서 많은 하녀와 하인들 가운데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유명한 창녀 카말라였다. 싯다르타는 다음날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그녀의 소개로 거부 카마스와미를 만나 그의 신임을 얻어 부유한 장자로 커가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싯다르타는 카말라와 친하게 지냈다. 싯다르타는 오랜 세월동안 세속과 쾌락의 생활을 했지만 진실로 거기에 속하지는 않았다. 그는 점점 축적되어 가는 부유 속에서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림 · 심민섭

싯다르타는 길을 떠났다. 죽음의 불안 늙음에의 두려움 등으로 가슴이 머지 않았음을 느끼고 장원을 떠나는 싯다르타는 다시는 돌아 오지 않으리라 마음 먹었다.

생활 속의 불교 ⑰

결국은 버려야 할 것을 위하는 삶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온갖 부귀영화를 버리신 까닭은 무엇인가. 예정된 왕위도 싫다, 갖은 복락의 약속도 싫다 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권력·명예·재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들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가.

중국의 유마힐 방온거사는 제법 많은 재산을 봉땅 양자강의 동정호에 내다 버리고 부인과 딸과 함께 초막에 은거하면서 탁발에 의지해 살았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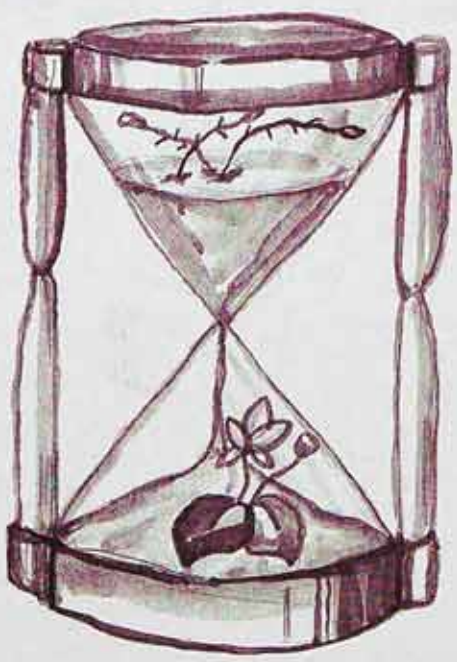
중생심으로 헤아리면 이는 분명코 정신 나간 짓이다. 차라리 그 많은 재산을 빈민을 위한 자선사업에나 쓸 일이지, 그 아까운 것을 헌신짝 버리듯 포기하다니…….

부처님께서는 사문출유(四門出遊) 과정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셨다. 설사 부귀영화가 하늘에 닿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버려야 할 것임을 아시고 그 까닭을 규명하고자 하셨다.

방거사는 또 어떤가. 제법무아·제행무상일진대 어디 재물일쏘냐? 하는 우뢰와 같은 법문을 한 것이었다.

부처님의 첫 설법은 고집멸도 - 사성제이다. 삶은 무상하니 고이며 고는 나, 나의 것이라는 집착·갈애에서 비롯되므로 집착을 여의지 아니 하고는 도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사성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출가와 고행을 통해 이를 깨달으시고 평생 고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가르치셨다.

삶에는 즐거움도 행복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라져 간다. 세상만사에 항상하는 것은 없다. 권력·명예·재물, 그리고 목숨까지도 결국은 버리게 된다. 자신이 아무리 싫다 하고 발버둥쳐도 저지할 방법은 없다. 그 일에 성공한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것이 항상하기를 바라며 쉬지 않고 쫓아 간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쓴다. 때로는 그 일에 평생을 바치기도 한다. 그래서 삶은 도로(徒勞)가 된다. 고(苦)가 된다.



모든 것을 결국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애써 집착하는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권력에 붙들려 얽매이고 명예, 재물에 붙잡힌 마음이 한결 자유스러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럼에도 중생들은 그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억으로 부처님을 신비적인, 전지전능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복을 달라, 도움을 주십사 빌고 빈다. 가르침과는 전혀 딴판의 짓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모순된 행위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탈지향이다. 누구나 고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그러기에 가르침은 집착을 부정한다. 갈애를 부정한다. 집착과 갈애의 근본이 되는 나, 나의 것이라는 관념을 부정한다. 철저한 자기부정(否定) - 관념의 죽음을 말한다. 시비 분별에서 비롯된 번뇌의 끊음을 말한다. 한마디로 죽어야 자유로우리라, 죽어야 너의 진면목을 보리라 말한다. 관념·분별·사량·집착·갈애의 죽음만이 고의 근치(根治)처방이다. 그것만이 갈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게 되는 길이다. 그밖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다. 절대로 없다. 그것이 사성제의 가르침이요, 출가 - 성도의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는 불자임을 자처하면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해탈? 윤리? 실리? 이타? 그 무엇인가? 경건한 마음으로 되돌아 볼 일이다.

협찬 : 남 상 호